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자기 번뇌를 없애야 한다.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1월 1일)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속환사바하시어 다시 함께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 · 다비식 봉행



조계종은 12월 3일 조계사 일원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을 종단장으로 봉행했다. 사진은 자승 대종사의 법구를 다비장인 용주사로 이운하기 위해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는 모습.

신중일 · 윤호섭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난 11월 29일 원적에 든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조계종 제33 · 34대 총무원장)의 생전 원력인 전법선언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가 서울 종로 조계사 도량에 울려 퍼졌다. 자승 대종사가 끝까지 놓지 않던 화두이자 원력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는 사부대중에게 대종사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법문이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2월 3일 서울 종로 조계사 일원에서 '제33 · 34대 총무원장 해봉당 자승 대종사 영결식' 을 종단장으로 봉행했다.

명종과 삼귀의례로 시작된 영결식은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영결법요와 함께 용주사 前 주지 성법 스님이 헌향을, 용주사 성보박물관장 성월 스님이 헌다했다. 이어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삼배를 올렸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행장 소개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죽비로 이뤄진 추도입정 이후에는 자승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이어졌다. 생전 육성 법문은 자승 대종사의 2013년 총무원장 신년사, 2017년 신년간담회,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사,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사로 이어졌고, 사부대중은 대종사가 제시한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준비된 영결 법어 대신 즉석에서 법문을 설했다. "자승 스님!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을 크게 부른 성파 대종사는 "지난 2월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간다하여 이 자리에서 잘 다녀오라고 격려했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기약이 없는 영결식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슬퍼했다.

성파 대종사는 "우리 인생을 사바세계라고도 하고 고해라고도 한다. 자승 스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살면서 많은 교훈을 남기셨다"면서 "사바세계의 육신을 버리고 법신으로 안양국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가 남긴 유훈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천축국(天竺國) 40여 일에 걸친 가행정진길에는 아직도 발자국이 그대로 지워지지 않았고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에서 100일동안 앉았던 좌복에는 여전히 따스한 기운이 식지 않았다"며 "그 뜻과 의지를 오롯하게 이어받은 상월결사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대화상의 수행력과 유훈이 하나로 결집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전법포교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 법을 전하신 자승 대종사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원력의 씨를 뿌리자는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추도사에서 자승 대종사를 "한국불교에 전법을 화두로 던진 '포교의 화신' "이라고 평가하며 "한국불교의 중흥과 전법도생에 대한 대종사의 원력은 마침내 소신공양 자화장에 이르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들은 대종사가 스스로 다비한 간절한 자화장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광 대종사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시여! 속히 속환사바하여 다시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라고 크게 외쳤다.

불교계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조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자승 대종사께서 쌓아놓은 수행과 전법의 초석이 첩첩이 큰 산을 이뤘다"면서 "이제 우리들은 스님께서 열어 보이신 길을 따라 원력 불사를 하나하나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다비식. 연화대에는 생전 대종사가 강조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문구를 내걸었다.

총본산 조계사서 종단장으로 엄수
전국 각처서 사부대중 1만명 운집
자승 대종사 생전 육성법문 '뭉클'
종정예하 "많은 교훈 남겼다" 치하
尹 대통령 "대종사 원력 이어갈 것"
대중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다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때로는 도반처럼 대중을 이끌어 주시던 대종사께서 이렇듯 홀연히 해탈의 길에 드시니 우리 후학들은 어느 하늘 아래 기대어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합니까"라고 애도했으며,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일오 스님은 "화중생련(火中生蓮)으로 미진(微塵)을 다하는 날까지도 일체유위(一切有爲)가 포영환몽(泡影幻夢)이라는 심지법(心地法)을 설파하심에 우리 종도들은 합심동덕으로 결계하고 파사현정으로 불교중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이후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승 대종사 영전에 헌화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부의장 상월 보선 대종사, 익산 도후 대종사 등 원로의원 스님들과 밀운 부림 대종사, 수봉 세민 대종사, 학산 대원 대종사 등 명예원로의원스님들,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 등이 자승 대종사에게 꽃을 올렸다.

또한, 이날 헌화에는 자승 대종사가 총무원장 재임 당시 도움을 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 안산 단원고 조은화 · 허다윤 학생 어머니를 비롯해 김득중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부장, 김승하 KTX여승무원 노조 지부장,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도 헌화에 동참했다.

자승 대종사의 육성으로 전법선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제창하고 전법 원력을 되새기며 영결식은 마무리됐다.

문도를 대표해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영결식 참석 대중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후 자승 대종사의 법구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나와 8년간 총무원장으로 재임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을 지나 조계사 일주문에서 노재를 지냈다. 만장과 영정을 앞세운 대종사의 법구는 우정국로와 공평사거리로 이운해 다비식이 엄수되는 용주사로 이운됐다.

용주사로 이운된 대종사의 법구는 대웅전 앞을 지나 다비장으로 나아갔다. 다비장은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과 주요사찰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재가불자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다.

거화 의식은 30여 명의 스님이 함께 자승 대종사의 법구를 향해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를 외치며 시작됐다. 연화대 불길은 금세 솟아올랐고, 사부대중은 합장한 채 사바세계를 떠나는 자승 대종사의 마지막을 추도했다.

한편 추모일정은 12월 5일 봉은사 · 용주사 초재를 시작으로 △2재 봉은사(12월 12일) △3재 봉은사(12월 19일) △4재 봉은사(12월 26일) △5재 봉은사(1월 2일) △6재 봉은사(1월 9일) △7재 봉은사 · 용주사(1월 16일) 순으로 진행된다.

大韓佛教曹溪宗 第33代 · 第34代 總務院長

海峰堂 慈乘 大宗師 宗團葬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大韓佛教曹溪宗 第33代·第34代 總務院長 海峰堂 慈乘 大宗師를 追慕하기 위해 弔問하여 주신 大統領께 感謝드리며, 12月 3日 한국불교총본산 曹溪寺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이웃宗教·宗團 여러분과 四部大衆의 雲集 속에서 大韓佛教曹溪宗 宗團葬으로 嚴肅하게 奉行하였습니다.

公私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哀悼의 심정으로 參席해 주신데 대해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한 喪中이므로 우선 紙面을 통해 感謝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紀2567年 12月 5日

葬儀委員會 委員長 ·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大蓮 眞愚, 門徒 一同 合掌

태고종 제21세 종정에 운경 스님 추대

12월 5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종단 발전에 전심전력하겠다"
대종사 특별법계 품수도 인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12월 5일 열린 태고종 원로회의에서 제21세 종정으로 추대된 운경 스님.

태고종 제21세 종정에 서울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이 추대됐다. 전 종정 지허 스님의 원적으로 공석이었던 종정이 새롭게 추대되면서 태고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도광)는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종정추대회의를 개최하고 운경 스님을 제21세 종정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원로회의에는 원로의장 도광 스님를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21세 종정으로 추대된 운경 스님은 "부족하고 모자란 본인을 종단의 종정으로 추대해줘 감사드린다"며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뜻을 맞춰 태고종단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하겠다. 원로스님들께서도 많은 일깨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수락 법어를 내렸다. 태고종 종정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운경 스님은 1959년 서울 백련사에서 설호 스님을 은사로, 금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백련사 강원 사미과 및 사교과를 수료하고, 법륜사와 선암사에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75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 및 비구계를 수지한 운경 스님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백련사 상임법사, 태고종 종무위원, 태고종 보건공제회 전무이사, 월간불교사 주간 등 종단 내 굵직한 소임을 두루 맡아 종단 발전에 앞장서 왔다.

1996년부터는 백련사 주지로 부임한 후 수행에 매진했으며, 2002년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을 맡아 후학양성에 기여했다. 2016년에는 23개 한문 불교 경전과 서문에 토를 달고 해석한 '제경요제'를 발간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후학들의 공부를 독려했다. 2017년 태고종은 운경 스님에게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내렸고, 2018년 태고종 원로회 원로의원으로 위촉했다.

태고종 원로회의에서는 18명의 스님에 대한 대종사 특별법계 품수도 인준했다.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원로회의법 제7조 1항 8호 및 법계법 제9조 3항 조항에 의거해 2023년도 대종사 특별법계를 신청내용과 같이 승인한다"며 "대종사 법계를 신청한 18명의 스님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의 철저한 자격 검증을 거쳐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법계품수를 인준한다"고 밝혔다. 대종사 특별법계를 품수한 스님은 혜일 · 지명 · 운설 · 정진 · 지현 · 수진 · 동환 · 수열 · 성보 · 대성 · 종민 · 지상 · 혜일 · 도광 · 대주 · 성오 · 명운 · 덕혜 스님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원로회의에 앞서 "오늘 원로회의는 종단 발전을 위해 한 발 나아가는 자리"라며 "선배스님들이 지금껏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던 일들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보필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앞으로도 종단 정세를 비롯한 아픔, 발전 방향 등 종단의 다양한 이야기를 원로의원스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원로의장 도광 스님과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품청으로 종정 추대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계종, 내년도 승가고시 일정 확정

내년 4월 4일 '1급 승가고시'
고시위원에 영덕 스님 위촉도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가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불기2568(2024)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확정했다.

비구 대덕, 비구니 혜덕 법계를 수지한 승납 25년 이상 스님들이 치르는 '1급 승가고시'는 내년 4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승납 20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급 승가고시'는 내년 10월 10일 중앙승가대에서 시행된다. 응시접수는 내년 8월 12일부터 26일까지다. 승납 10년 이상 스님들이 치르는 '3급 승가고시'는 내년 4월 25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다. 응시원서 접수일은 내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이다.

'4급 승가고시'는 내년 3월 21일 중앙승가대에서 진행된다. 4급 승가고시는 사미와 사미니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응시할 수 있다. 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5급 승가고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치러진다. 상반기는 내년 3월 11일, 하반기는 내년 8~9월로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66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일정에 따라 고시일과 고사장이 변경될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 승가고시 일정을 12월 22일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새 고시위원에 운문사승가대학장 영덕 스님을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조계종 승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영덕 스님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삼독심 벗어나려면 참회하세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국회정각회 법문

태고종 총무원장으로서 처음
'삶의 평화와 진리' 주제 법문
김진표 의장 방문, 차담 나눠



"삼독심, 즉 탐심과 진심, 치심이란 독사가 마음에 있으니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은 12월 7일 국회 정각선원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12월 정기법회' 법사로 참석해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에게 감로법문을 설했다. 법회에는 주호영 정각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 임호경 · 정성호 · 조명희 의원과 천우정 국회 직원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직 태고종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 국회 정각선원 법석에 오른 상진 스님은 법회 참석 대중에게 '삶에 평화의 진리'를 주제로 법문을 내렸다.

먼저 〈천수경〉의 '아석소조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瞋癡) 종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라는 '참회게(懺悔偈)'를 대중에게 상기시킨 상진 스님은 참회를 통해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함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탐심은 욕심내는 마음이고 진심은 화내는 마음,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이라며 "이 삼독심이 일어나는 죄를 짓는 곳은 몸과 입과 마음이다. 신 · 구 · 의로 우리는 십대 죄악을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참회해야한다. 그래서 '참회게'와 '십악참회' '참회진언'이 〈천수경〉에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것들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악구(惡口)다. 지어진 죄업을 쌓아놓지 말고, 참회진언을 외면서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진 스님은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이란 경구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가 5가지 큰 은혜를 새기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명심해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큰 은혜는 △모든 제도 갖추어서 잘살게 한 국가의 은혜(各安其所國王之恩) △고통 속에 낳아 기른 하늘같은 부모의 은혜(生養劬勞父母之恩)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주신 스승의 은혜(流通正法師長之恩) △의식주의 어려움을 돌봐주신 시주의 은혜(四事供養檀月之恩) △갈고닦고 이끌어서 성공케한 친구의 은혜(琢磨相成朋友之恩)다.

상진 스님은 "오종대은명심불망이란 큰 은혜를 우리 국민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저는 항상 '은혜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원한 맺은 일은 모래에 새기라' 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원한을 대리석에 새긴다"고 지적하면서 "부처님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진실과 진리를 가질 수 있다.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참회를 잘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불평과 불만 같은 부정적 마인드보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인욕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진 스님은 법회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김 의장에게 목판본 반야심경을 선물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재경부원장 고담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재경부장 효능 스님, 문화부장 처명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사서실장 원오 스님 등이 배석했다.

신중일 기자



광화문 앞 도로를 지나며 오체투지를 이어가는 스님과 장애인부모연대 구성원들.

"차별 없는 세상, 통합사회 발원"

조계종 사노위 · 장애인부모연대, 12월 7일 오체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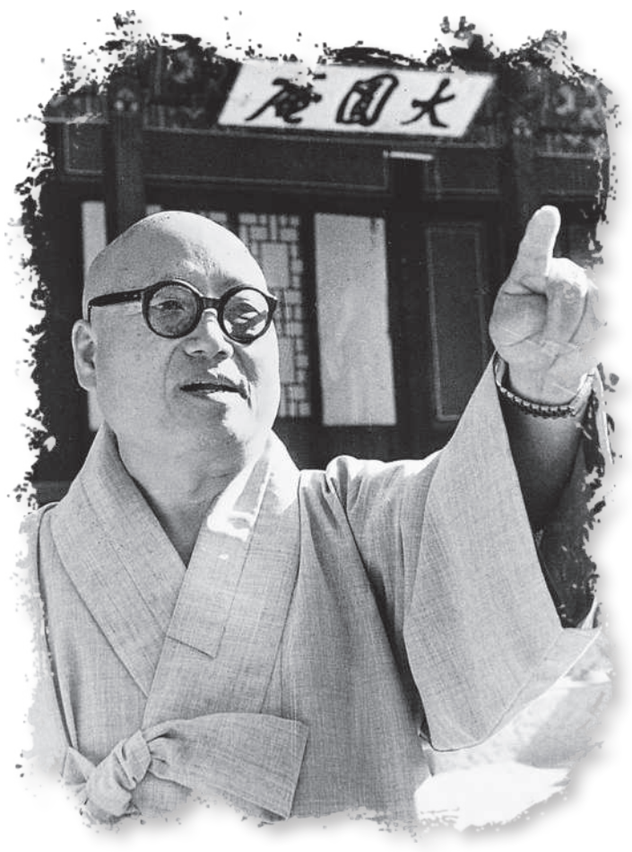
지난해 11명, 올해 8명. 매년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및 정책 부족을 이유로 세상을 등진다.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완전한 통합사회를 발원하는 오체투지가 열렸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2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주거서비스 보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11월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충북, 대전, 경기 등 전국 11개 지역을 돌며 오체투지를 펼쳤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뜻에 깊이 공감,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서울 오체투지를 함께했다. 서울 오체투지에는 위원 혜도 · 원경 · 보현 스님이 동참했다.

오체투지에 앞서 혜도 스님은 "매년 끊이지 않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정부 정책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타살과도 같다"며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이 보장돼야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다. 그래야 참사도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선포로 500여 명 동참자가 서울시청을 향해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발달장애 차별을 멈추라"는 구호에 맞춰 세 걸음을 걷고 온몸을 바닥에 던졌다. 1.2km 구간을 이동한 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김내영 기자



『십우도』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탄허 택성의 불꽃 같은 생애!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백금남 지음

오대산 월정사의 조실로서 특히 예언에 밝았던 탄허당 택성 대종사. 작가는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한 스님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왜 그가 화엄학에 그토록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그의 예언들. 그것이 허명에 의한 술(術)의 경지가 아니라 도(道)의 경지에 입각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스님.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하셨다면서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오로지 그들은 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그러나 그 인심 속에 희망이 있다. 바람 속의 꽃이 역사가 되듯이 화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희망이 있다.



펴낸곳 피플워치 양장본 533쪽 | 26000원 연락처 02-352-3861

자승 대종사, 국가 최고 영예 무궁화장 수훈

12월 2일 조계사 대웅전서 추서식
유인촌 장관이 대종사 영전에 봉정
사회통합, 전통문화 창달 기여 공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유인촌 장관이 12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봉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11월 29일 원적에 든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대종사(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전통문화 창달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자승 대종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날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윤 대통령이 추서한 훈장을 자승 대종사 영전에 봉정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역대 무궁화장에는 월주 스님, 법장 스님, 청담 스님 등이 추서된 바 있다.

훈장 봉정을 마친 유인촌 장관은 "훈장 추서는 자승 대종사의 입적 첫날부터 논의됐고, 대종사의 공로를 인정해 추서가 빠르게 결정됐다. 발인 전에 추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자승 대종사께서는 불교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폭 넓은 활동을 해오셨다. 훈장 추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도 이날 오후 조계사를 찾아 자승 대종사를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린 윤 대통령 부부는 삼배를 하며 대종사를 애도했다. 이후에는 장의위원 스님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는 스님들과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문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과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승 대종사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자승 대종사 원적에 관심과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대종사께서 남기신 유지를 잘 받들어 한국불교의 안정과 화합을 빈틈없이 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 전인 12월 1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봉은사서 초재…"대종사 유지 이어가겠다"

12월 5일, 자승 대종사 유언 따라


12월 5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된 자승 대종사 49재 초재.

지난달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49재 초재가 12월 5일 대종사의 주석사찰이었던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 등을 상주로 봉행된 봉은사 초재에는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승 대종사의 덕화를 기렸다. 자승 대종사의 유언장에는 다비부터 모든 재를 봉은사에서 지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30여 명은 대종사 영전에 헌향·헌화하며 종단 화합과 대학생 청년 전법의 가치를 되새겼다. 봉은사 초재 종사영반은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맡았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초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승 스님은) 불교광장 총재로서 든든한 버팀목이이셨고, (많은 이들의) 의지처로서 큰 역량을 발휘하신 분"이라며 "종회는 총재스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과 화합의 힘을 잘 지켜나가겠다. 종단 화합과 발전, 대학생 청년 포교 원력을 종회의원, 상월결사, 종단이 잘 이어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승 대종사의 상좌들이 모인 해봉문도회 의장 탄원 스님은 장례를 종단장으로 결정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다. 탄원 스님은 "총무원장스님께서 (장례를) 종단장으로 이끌어주신 점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린다"며 "(은사스님) 유지에 따라 봉은사에서 초재부터 막재까지 지내고, 문도를 생각해 용주사에서 초재와 막재를 올리게 돼 많이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은사스님이) 작년에 문도회 대중을 모아놓고 '행여 내가 없을 때 너희들 어떻게 살겠느냐. 다들 뭉치고 의지해야지 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때는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문도회가 똘똘 뭉쳐서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화성 용주사에서도 초재가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이원욱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 종무원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추모의 참배를 올렸다.

윤호섭 기자

"자승 대종사 원적, 종도 단합 계기 삼자"

조계종 제3차 본사주지회의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교구본사가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불기2567(2023)년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특별교구를 포함한 27개 본사 중 22개 본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입적에 따른 현안 공유차 열린 임시회의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제안에 따라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속환사바를 기원하며 짧은 추모 입정으로 전법 의지를 다졌다. 진우 스님은 이어 인사말을 통해 종단장으로 치른 자승 대종사 장례에 성심껏 동참해준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종단사에 생겼다. 아직도 이것이 꿈이 아닌지 가끔씩 생각하게 된다"며 "자승 대종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다 함께 일심동체로 중심이 된다면 저에게 많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종도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모처럼 찾아온 종단 안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전 종도가 합심해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 그렇게 된다면 자승 대종사님의 바람대로 불교중흥과 전법도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출가정신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감, 소통하면서 부처님법과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공평무사를 원칙으로 해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력불사 계승에 대한 건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에 대한 건 △천년을세우다 '명상센터 건립 및 명상프로그램 개발' 보고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보고 등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자승 대종사 원적에 상실감이 크지만 이를 계기로 종도가 단합·발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총무원 측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일심동체로 총무원장스님을 잘 모시며 한 뜻으로 총무원 집행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요 종책사업인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와 명상센터 건립 등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윤호섭 기자



인생 2모작 "힐링캠프로 마음치유"

문경세계명상마을, 12월 1~3일 제1회 중년명상힐링캠프 성료

전국서 100여 참가자 참여
각산 스님 "마음 돌리면 행복"
선지식들의 마음공부 듣고
힐링프로그램 체험도 진행

문경=노덕현 기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힐링캠프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

중년들에게 인생 2모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청년명상힐링캠프를 통해 힐링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만 40세부터 55세까지의 중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중년명상힐링캠프를 개최한 것.

캠프에서는 명상마스터인 각산 스님과 마가 스님 등이 강연과 대화, 비베카킴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학 한국지부 대표의 요가체험, 선무도 체험 및 숲속 걷기명상 등이 진행됐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직장인인 점을 감안해 중년명상힐링캠프는 자유로움 속에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배정했다. 스마트폰을 지참할 수는 있도록 하되 되도록 보지 않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도 자율에 맡겼다. 또 올해 개설된 꾸띠에서 스스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1일 진행된 입재식에서 선원장 각산 스님은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 이라며 "여러분이 이제 50 60 70을 맞이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그 다음을 만들어 내는 씨앗이 된다. 마음을 쓰는 법, 지혜를 얻는 법을 단순하게 알려드리면 '고요히 멈추면' 된다"고 조언을 건넸다.

이어진 각산 스님의 호쾌한 법문에 참석한 대중들은 귀를 기울였다. 스님은 보다 쉽게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알려줬다. 스님은 "희망이 없는 자는 천하재벌도 무너지고, 희망이 있는 자 어떠한 궁핍함 속에서도 힘을 낸다. 괴로울 때는 '아, 괜찮다' '나 잘할수 있어' '마음 되돌려 쓰기' 이 세 가지를 되새기라"고 했다.


걷기명상을 직접 지도 하고 있는 선원장 각산 스님과 이를 지켜보는 캠프 참가자들.

스님은 미얀마수행센터에서 지낼 당시 선배스님이 보여줬던 행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 수행센터에서 선배스님과 씻는데 수건이 너무 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게 '행님, 수건 좀 바꾸소. 냄새나고 다 끊어진걸 머 이런걸 씁니까' 라고 하니 '불편한 게 편한 거요' 라고 들었어요.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이후 가는데마다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몸뚱이를 천하게 굴리는 자는 가는 데마다 호텔이고, 평소에 호텔에 사는 자는 가는 데마다 움막인 겁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갈애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곳이 행복인 겁니다."

참가자들은 첫날 걷기명상과 함께 별빛보기 등에 이어 명상마을 측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둘째 날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지도 하에 마음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청년, 중년명상힐링캠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시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한국전통 간화선을 체험하는 '선칠(禪七 · 7일참선) 수행' 을 비롯하여 20일과 30일 중기 수행도 진행 중이다. 054-1577-4327

"주어사지 정비해 공공성 증대시켜야"

불교역사제자리찾기, 12월 6일 주어사지 보존 관리방안 세미나 "역사문화 교육장 활용" 기대도



주어사지 발굴 후 절터 보존 방안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학술세미나에서 주어사의 불교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는 12월 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메따공연장에서 '역사바로세우기 학술세미나-주어사지 보존 관리방안' 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기도 여주 주어사의 한국불교사적 의의(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조선 불교사의 관점에서 본 주어사(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여주 주어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본 유적의 성격(김진덕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실장) △여주 주어사지 종합정비 침 활용방안(박태연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이 발제됐다.

발제에 의하면 주어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과 유구를 통해 주어사지의 중심운영 시기는 조선시대 중기부터 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어사지는 접근이 어려운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명문기와편과 양질의 백자편 등이 확인됐고 반출된 해운당대사탑비 및 위암당대사 승탑 등을 통해 조선 중기 사세가 작지 않은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불교계의 소극적인 대처와 방관으로 이웃종교 발상지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간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굴이 마무리된 주어사지에 대한 종합정비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태연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천주교 발상지이자 불교 사찰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표조사가 이뤄진 5기 건물지 시 · 발굴조사 후 훼손되지 않도록 수목과 사역 정비 △진입로 · 탐방로 재정비로 신도 및 탐방객들의 접근 용이로 사역 이미지 향상 유도 △전통사찰 터로서 문화재 중심 역사문화교육과 불교, 천주교, 유교에 대한 종교문화 체험의 장 계획 등을 제시했다.

박태연 교수는 "주어사지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편의성과 공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기본정비계획을 수립, 주어사지에 대한 가치 고양과 자랑스러운 상생개념의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앞서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2021년 8월 광주시가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을 조성한다는 발표 이후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전국불교단체가 모여 불교여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3년간의 일들을 회고하고 "나비 날개짓이 돌고 돌아 태풍을 일으키듯이 주어사지에 대한 불자들의 작은 역사의식이 종교편향에 대응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는 '비대면 공부모임' 을 통해 한반도 종교역사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종교 관련 행정 위법 사례(11월 27일, 29일, 심민석 동국대 법과대학 대우교수) △종교 갈등의 이유, 그 종교학적 분석(12월 4일, 이찬수 인권평화연구원장) △종교 갈등의 극복, 그 불교학적 대안(12월 6일, 이찬수 인권평화연구원장) △난상 토론(12월 13일,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등으로 진행된다. 공부모임 카카오채널 채팅방(open.kakao.com/o/goU94LTd) 010-2528-8438 임은호 기자

연화원 창립 20돌…"장애 · 비장애 함께하는 세상 발원"

장애인전법 중심도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창립 20주년

1993년, 작은 수화 법회로 출발
2003년 법인…문화관 건립 꿈꿔
12월 17일, 자비나눔 마당 개최

장애인전법 중심도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이사 해성)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연화원의 시작은 작은 수화법회다. 1990년 전후로 출간된 일반 수화집에 수록된 불교 수형이 서너 개가 전부임을 확인한 해성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면서다. 1993년 2월, 서울 석촌동(당시 포이동)에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도량을 꾸렸고, 2003년 법인으로 거듭났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연화원은 장애인 전법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 〈자비의 수화교실〉(1999)을 발간했고 이는 11년 후인 2010년, 1127개의 수형을 담은 국립국어원 편찬 〈불교 표준 수화집〉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찰은 물론 관공서조차 휠체어 경사로 하나 구비되지 않던 시대, 거동이 힘든 중증지체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 차량을 준비, 산사순례를 다녔다. 1997년, 청각장애인들에게 운전교육을 실시, 면허취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법인 후에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굴했다. 〈금강경〉 〈법화경〉 등 다양한 경전을 점자로 제작해 보급하는데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종단본 〈불교성전〉 점자 제작에 한창이다. 최근 3권이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7권까지 이어진다.

쉼 없이 달려온 지 20년. 해성 스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1996년부터 참여한 연등회 행렬을 꼽았다.

해성 스님은 " '장애인불자들이 수십만 명이 즐기는 연등축제에 참여,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연등을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순간"이라면서 "지금도 장애인불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연중행사"라고 말했다.


연화원이 마련한 문화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불자들 모습.

지금 연화원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복합 복지관 마련을 꿈꾸고 있다. 1층은 카페 겸 장애인 생산용품 판매점, 2~3층은 지체 · 시청각 장애인 전용공간, 4층은 의료시설, 5층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마련하고 싶다. 해성 스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익창출, 문화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언젠간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연화원은 2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법석을 마련한다.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수어사랑 음악회 및 자비나눔 한마당' 을 개최한다.

혜성 스님은 "장애와 비장애의 편견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연화원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농협 100025-55-001517 / 신한 100-024-654090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임은호 기자

봉은사, 김장 8000포기로 자비나눔 실천

12월 2일, 경내서 개최…지역기관 등에 전달도



봉은사(주지 원명)는 12월 2일 경내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2023년 봉은사 자비의 김장나눔' 를 열고 80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사진〉

봉은사 신도와 종무원, 산하기관 종사자 및 봉사자들은 향적원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평창에서 공수한 고랭지 절인배추를 함께 버무리고 포장하며 바삐 움직였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소외이웃, 지역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됐다.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나눔의 동참한 단체도 눈길을 끌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해 불우이웃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봉은사는 매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사 봉은(대표이사 원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 나눔을 실천하며 부처님 가피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임은호 기자

"'진정한 자유 여정' 여성 출가학교로"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 모집

수원 봉녕사가 지친 현대 여성들의 삶에 등불을 밝히고 진정한 자유의 여정으로 안내하는 첫 여성 출가학교를 운영한다.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 삶을 점검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출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봉녕사(주지 진상)가 내년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제1기 여성 출가학교' 에 입방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한 달간 봉녕사에 머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서류 · 면접 심사 합격 후 입산하며, 희망자에 한해 삭발식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고불식, 삼귀의 오계 및 팔관재계를 수지하고 발우공양, 사찰 예절, 목탁 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매일 조석예불 및 사사불공, 운력, 실참수행 등 일과를 수행하고 부처님 생애와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등 교리 수업도 받는다. 삼보일배와 차명상, 요가, 싱잉볼, 사찰음식 특강, 선지식 초청법문, 2교구 본사 용주사 성지순례, 화성행궁 산행, 자비도량참법 기도 등 특별프로그램도 곳곳에 배치해 한국 승가의 생활 전반을 경험할 수 있다.

대중생활에 지장 없는 17세~50세 여성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110만 원이다. 고교생, 대학생, 봉녕사 불교대학 졸업생은 10만 원 할인된다. 접수는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입학지원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증명사진,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해 봉녕사 홈페이지(www.bongnyeongsa.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는 1월 17일 봉녕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한다.

봉녕사는 "참가자들에게 봉녕사 여성출가학교는 출가 공동체생활을 통해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 온전한 수행자로서의 나와 마주하게 되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출가 체험은 오늘날 같은 출가자 격감 시대에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발심출가' 라는 가장 멋진 선택을 할 용기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탄자니아 농업대 5회 졸업식…81명 배출

12월 1일, 일화 스님 등 참석 수석 졸업생엔 한국 유학 기회 "한국 불교가 탄자니아에 희망"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다섯 번째 졸업식을 갖고 탄자니아 미래를 이끌 불교인재 81명을 배출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1일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제5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8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사진〉

이날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자 아마니(Elijah Amani Abel)에게는 한국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다. 엘리자 알마니는 동국대 한국어교육원 입학을 준비중이다. 엘리자 아마니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훌륭한 선생님들께 3년간 공부를 배운 것도 감사한데, 한국 유학까지 가게 돼 너무 큰 행운을 얻은 것 같다"며 "한국의 훌륭한 농업기술을 배워 탄자니아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6년 개교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일반농업, 원예학과, 축산학과 등 3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전교생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은 이번 졸업생까지 총 410명을 사회로 배출시키며 탄자니아 농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다르에살람 세종학당을 통해 인근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도 펼치고 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내 법당과 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개교 당시 한국에서 모셔간 비로자나부처님은 아직 독립된 법당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강당에 모셔져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불사로 비로자나부처님을 법당으로 옮기고,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한국불교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홈페이지(http://dreaminus.org) 참조. 02-737-9595 김내영 기자

"불교복지 발전 이끈 헌신 감사합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2월 5일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올 한 해 사회 약자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진우 · 대표이사 묘장)은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5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시상식에서는 천안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 연화보호작업장 시설장 구견 스님,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원장 묘전 스님, 김향림 시립죽전어린이집 원장, 허종국 홍천군장애인복지관장이 사회복지시설단체운영 부문 총무원장 표창을, 이창익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이현용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과장, 한은경 자광원 사무국장, 박유선 서울특별시립24시간 게스트하우스 영양사, 이미경 금정구노인복지관 부장이 불교사회복지발전공헌 부문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는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김내영 기자

“손으로 본 반가사유상, 깨달음의 미소 느껴져요”

현장 국립중앙박물관 시각장애인 전시학습 ‘오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국민적인 호응 얻은 ‘사유의 방’
조명 · 배치 노력 끝 완성했지만
시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일 뿐

시각장애인 위한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모형으로 만질 수 있어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요”



11월 25일 ‘오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이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을 재현한 모형을 두 손으로 만져보며 미소 짓고 있다.

“부처님이 참 잘생기셨네.”

두 손으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재현한 모형을 더듬던 시각장애인 배선애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동안 불교용품점에서나 만져봤던 자그마한 불상과는 격이 다른 느낌에서 나온 말이었다. 옆에 있던 시각장애인 강태봉 씨는 오른손 두 손가락을 볼에 댄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모형의 오른팔 장식을 만지며 말했다.

“이건 단주는 아니고 팔찌 같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양한 감각으로 박물관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며 공감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학습공간 ‘오감’ 교육현장. 11월 25일 오후 박물관에서 만난 시각장애불자 강태봉 · 지선걸 씨와 체험에 함께한 배선애 씨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름만 들어봤던 반가사유상을 직접 손끝으로 느껴본 자리.

교육을 안내하던 윤주희 강사가 “똑같은 재료와 크기로 만들어진 모형”이라며 교육장에 배치된 두 반가사유상을 소개하자 참가자들에게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의 말마따나 ‘백문이 불여일감(不如一感)’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나란히 전시한 ‘사유의 방’을 기획하며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는데, ‘사유의 방’은 기존 전시들과는 성격이 달랐다. 유명한 두 반가사유상을 구구절절 해설하기보다는 관람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경험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박물관은 시각장애인들이 결코 찾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 1순위로 꼽힌다. 대부분 유물이 유리벽 너머에 존재하는 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이 체험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점자로 된 설명을 읽고 나름대로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오감’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간의 전시가 문화유산 모조품을 만들어 단순히 만져볼 수 있게 했다면, ‘오감’은 반가사유상이라는 독립된 주제를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깊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방안을 사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아! 방안을 찾은 뒤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 게 아닐까 싶네요.”

반가사유상의 눈매와 입꼬리를 매만지던 강 씨가 진지한 감상평을 내놨다. 옆에서 “무념무상의 경지가 느껴진다”고 말한 지 씨 입가에는 어느새 반가사유상을 닮은 미소가 번졌다. 이런 시각장애불자들의 깊이 있는 감상평에 교육관 관계자들도 조금은 놀란 기색이다. 기자가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시각장애인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반가사유상을 느끼는 자리를 꼭 취재하고 싶었다”고 말을 건네자 그도 취지에 공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감’은 90분이라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인 만큼 준비도 철저했다. 시각장애인이 골전도 이어폰으로 음성 안내를 들으며 스스로 체험하도록 돕고, 촉지도로 교육장 구조도 알 수 있게 배려했다. 교육은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만져보고, 벽면에 부조로 표현한 반가사유상에서 두상과 자세 등을 차례차례 느낄 수 있게 했다. 또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만져보는 기회는 여타의 전시와 궤를 달리할 만큼 참신했다.

반가사유상을 접하기 직전에는 △반가사유상 내부를 상상하고 이야기하기 △두 사유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하기 △자세 따라 해보기 등 단순히 만지는 것을 넘어 보다 진지하게 체험할 수 있게 점자 활동카드를 나눠줬다. 이런 순서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반가사유상은 시각장애인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10년 전쯤인가 어느 박물관에서 신라시대 왕관 복제품을 만져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10살 때 시력을 잃어서 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살아온 제가 직접 만져본 왕관은 상상과 너무나 달랐어요. 난초처럼 장식이 뻗어나가는 게 얼마나 멋있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반가사유상도 마찬가지네요. 입체적인 유물을 더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이기도 한 강 씨가 반가사유상을 접한 뒤 감격하며 말했다. 박물관 유리벽 너머의 세상이 별 의미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오감’이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강 씨는 “반가사유상의 실제 크기를 알고 나니 그 시절에 만들었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며 “불자로서 두 손으로 부처님을 만지려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상상만 해오던 걸 경험할 수 있어 특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자인 지 씨 역시 “반가사유상이 오른쪽 다리를 접어 올리고 연화좌대에 앉아계신 걸 오늘에야 알게 됐다”며 “이름만 들어보고 상상해오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은 “사유의 방은 시각장애인이 느낄 수 없어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오감을 기획했다”며 “하나의 주제를 단계별로 심화했기 때문에 기존의 시각장애인 교육이 뷔페라면 오감은 파인 다이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오감’은 12월 12일부터 매주 화 · 수 · 목요일로 날짜를 변경해 내년 2월 1일까지 이어진다. 시간은 1회차 오전 10시, 2회차 오후 2시. 박물관 누리집과 교육 플랫폼 ‘모두’에서 3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가능하다. 02-2077-9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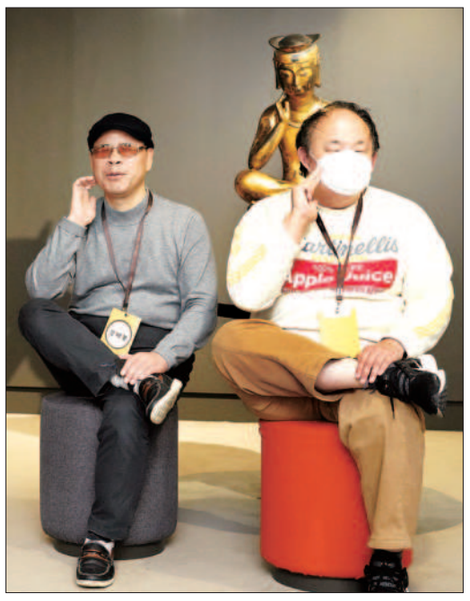
반가사유상을 자유롭게 만져보는 참가자들.



교육장 벽면에 부조로 표현된 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 제작 과정도 단계별로 만져볼 수 있다.



반가사유상 앞에서 자세를 따라 해보는 참가자들.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일본 교토 벗꽃여행 4일
3월25일 출발~3월28일 도착(3박4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벗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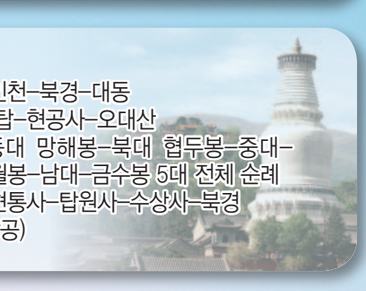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1월20일 출발~1월30일 도착(11일 일정)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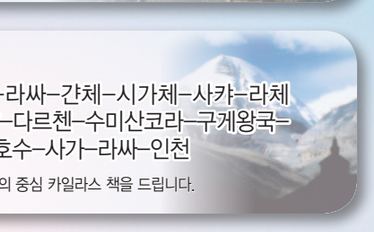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1차 2024년 4월12일~4월21일(9박10일)
2차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통도사, 화엄세계로 구법여행 떠나다

13일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지안 스님 화엄경 현담부터
1월 10일 회향까지 화엄법석
위패 봉안 · 왕생극락 기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12월 13일부터 1월 1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화엄산림법회 자료사진.

국내 최대 화엄법석의 장이 한 달 동안 펼쳐진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입재일은 13일 오전 9시 30분이며 입재법문은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화엄경 현담으로 시작한다. 이후 화엄산림법회는 △12월 14일 세주묘엄품(前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용학 스님) △12월 15일 여래현상품 · 보현삼매품(前 해인사 강주 원철 스님) △12월 16일 세계성취품 · 화장세계품(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12월 17일 비로자나품(前 해인사 강주 수진 스님) △12월 18일 여래명호품 · 사성제품(前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12월 19일 광명각품 · 보살문명품(조계종 계단위원 경성스님) △12월 20일 정행품 · 현수품(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12월 21일 승수미정상품 · 수미장상게찬품(前 송광사 강주 도암 스님) △12월 22일 십주품(前 백양사 강주 선행 스님) △12월 23일 범행품(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 △12월 24일 초발심공덕품 · 명법품(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12월 25일 불승야마천궁품 · 야마천궁게찬품(前 쌍계사 강주 반산 스님) △12월 26일 십행품 · 십무진장품(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화 스님) △12월 27일 승도솔천궁품 · 도솔궁중게찬품(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12월 28일 십회향품 1-5(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12월 29일 십회향품 6-10(前 동화사 강주 보윤 스님) △12월 30일 십지품(통도사 백련암 감원 원산 스님) △12월 31일 십정품(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1월 1일 십통품 · 십인품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1월 2일 아승지품 · 여래수량품(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 △1월 3일 제보살주처품 · 불부사의법품(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 △1월 4일 여래십신상해품 · 여래수호공덕품(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 △1월 5일 보현행품(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1월 6일 여래출현품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 △1월 7일 이세간품(창녕 관룡사 주지 정안 스님) △1월 8일 입법계품 휴사우바니까지(송광사 강주 연각 스님) △1월 9일 입법계품 비목구사~비산비연주야신(마산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순으로 진행된다. 회향은 1월 10일이며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법계품과 회향법문을 설한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매년 음력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법회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법 원력을 실천하는 전국의 재가불자들이 선사의 법문을 청하는 자리기도 하다. 참여 재가자들은 한 달 동안 통도사 설법전에 영가 위패를 봉안해 영가들이 화엄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도록 기도하며, 통도사는 매주 천도재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법문을 통해 우리들 각자가 유루의 법을 버리고 무루의 법을 증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절된 한국 채색화, 불교가 계승"

한국화 채색문화 주제로
통도사, 서울서 학술대회



통도사가 1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전통 채색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한국 미술계가 처한 위기로 꼽히는 가운데 불교 화승이 한국 채색화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2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한국화의 정체성-채색문화의 위상 재정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윤범모 동국대 명예석좌교수는 "미술대학에서 채색화 전공은 소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술대학에서 전통 채색화를 지도할 교수도 없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채색 전통의 단절은 가슴 아픈 미술계의 현실"이라 진단했다.

윤 교수는 이어 "민화 작가는 화원계열과 민간 화가로 구분해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비중 있게 봐야 할 화가 집단이 바로 사찰의 화승(畵僧)이다. 사찰은 채색 전통의 단절 없이 계속 전통을 이어왔고 소묘력 등 작가적 기본 소양을 갖춰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는 "조선말기 사찰 경제는 피폐함의 절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했고 자연스럽게 화승들은 마을로 내려가 오늘날 민화로 불리는 그림을 그려 일용품을 해결했다.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불교와 무관한 사찰 벽화 내용은 민화의 직접적인 원류의 하나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민화'의 위상을 재조명하며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교수는 "민화라는 용어의 폐기를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한국 회화사의 주류가 채색화라면 한국화라 불려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민화가 한국화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특성이 담긴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화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민화의 한국적 정체성(정병모 한국민화학교장) △민화의 개념 · 명칭 · 장르의 문제(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재료기법을 통해 본 한국화의 정체성(정종미 前 고려대 교수) △채색화와 미술시장-채색화는 시장에서 홀대 받았는가(손영옥 국민일보 기자) △비엔나 벨트뮤지엄 소장품 19세기 한국민화(베티나 조른 오스트리아 빈 미술관 큐레이터) △중국 공필화의 정의 및 역사적 전개-채색화조화를 중심으로(배원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파리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이우환 컬렉션-민화라는 용어의 재고(최옥경 보르도몽테뉴대학 부교수) △한국화의 정체성과 민화박물관의 역할(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 관장)이 발표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사상경찰서 기도도량 문 열어

사상구경승실 법당 5층에 개원…비로자나불 점안



부산 사상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성문)은 12월 4일 경찰서 내 5층에서 '사상경찰서 법당 개원 및 비로자나불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경승실은 법당을 개원하며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으로 시민의 안전과 경찰의 안위를 기도했다. 경승실은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경찰의 기도 공간으로 활용한다.

법회에는 사상경찰서 경승실장 성문 스님, 총무국장 법경 스님, 경승위원 자륜 · 은적 · 향공 스님을 비롯해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엄정운 사상경찰서장, 장제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문 스님은 "사상구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듯 가피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엄정운 사상경찰서장은 "사상경찰서에 모신 부처님 광명이 경찰과 시민에게 전해져 공덕이 무량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태종 광명사, 김장 1000포기 나눔

부산 금정구불교연합회 등 100여 명 함께 힘 보태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는 11월 30일 경내 대중공양실에서 '광명사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자비나눔에는 주지 춘광 스님을 비롯해 금정구불교연합회 부회장 법일 스님, 혜공 스님, 지훈 스님, 지광 스님,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해 배추 1000포기를 김장했다.

춘광 스님은 "오늘 마련한 김장김치로 소외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해주시는 광명사 주지스님과 신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사는 동지를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팥죽공양도 실시한다. 팥죽나눔은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천동(홈플러스 맞은편) 거리에서 진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적극적인 후원 · 봉사에 감사"

12월 1일, UN평화기념관 컨벤션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12월 1일 UN평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3년 자원봉사자 ·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문수복지재단은 행사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한 해 동안 펼쳐준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이 힘든 와중에도 끊임없이 법인과 산하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자원봉사와 후원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문수복지재단과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禪)을 알면 불교가 선명해지고 불교를 알면 삶이 만만해진다!

최고의 에세이스트 보경 스님이 쓴
선(禪) 공부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인도 → 중국 → 한국으로 이어지는
3,000년의 붓다 로드(BUDDHA-ROAD)

"만약 책 한 권으로 불교와 선종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불교와 선종의 공부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이는 나의 오랜 갈망이기도 하다."
- 저자의 말



고대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선종의 장대한 사상 전개

에세이 선종사
禪宗史

보경 지음 | 양장본
504쪽 | 30,000원

고대인도 사상
베다
우파니샤드
불교

인도불교 철학
아비달마
중관
유식
인명론
여래장
밀교

중국의 불교
문화사
역경사
불성사
선종사

출가 후 40년,
촘촘한 안목과 노련한 글 솜씨로
선의 지도를 그리다

한국의 불교
조계산문
정혜결사
무자화두
『선문염송』과 간화선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청화 대종사 수행 정신 계승하겠습니다”

청화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 학술 세미나 11월 30일~12월 1일 열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례재는 무상 스님과 대주 스님의 종사영반으로 마무리됐다.

염불선을 주창하며 근현대사 최고의 수행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무주당 청화 대종사(1923~2003)의 탄신 100주년과 열반 20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재와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벽산무주회(문장 용타)가 주최하고 청화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관해 11월 30일~12월 1일 양일간 전남 무안 혜운사에서 개최됐다.

12월 1일 진행한 다례재에는 벽산무주회 문도스님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전국에서 모인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스님의 공덕을 되새겼다.

다례재는 참석 대중이 함께한 보리방편문 봉독을 시작으로 공덕패 수여, 행장소개, 환영사와 축사, 격려사가 진행됐다.

벽산무주회 문장 용타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평생 철저한 수행과 교화를 통해 가르침을 주셨던 큰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보리방편문’을 늘 염송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올해 큰스님의 성역화 사업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큰스님의 덕화를 입은 문손 스님들과 신도들이 도량을 가꾸고, 법회를 이끌어줘 감사하다. 큰스님의 법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무안불교사암연회회장 법산 스님, 청화불교대학장 김영동 교수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벽산무주회는 청화 스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공덕을 지은 무상 스님, 토진 스님, 명원 스님, 혜용 스님, 본연 스님과 임창욱, 박현주, 배영자, 박선자, 김영동, 배광식, 유동숙, 정해숙, 윤기원, 조준호, 황민환, 반야화, 이중근, 김윤석, 권정자 불자에게 공덕패를 수여하고, 박문재, 김산, 서삼석 불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주 선우선방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발원문 봉독에 이어 무상 스님과 대주 스님의 종사영반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11월 30일 혜운사 청화대종사기념관에서 진행한 ‘제12차 청화사상연구회 학술세미나’는 ‘염불선의 성립과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청화 대종사의 행장’에 대해 강행원 화백의 발표와 대주 스님(성륜사 주지)의 토론 △‘중국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법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발표와 김용남(성균관대 교수) 토론 △‘인도불교 전적에 나타난 염불선의 성립과 계승’에 대해 조준호 교수(동국대)의 발표와 김치온 교수(진각대) 토론이 진행됐다.

청화 대종사는 1923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서 태어나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40여 년 동안 장좌불와, 일종식을 통해 철저한 수행과 대중교화를 펼쳤다. 2003년 곡성 성륜사에서 법납 56년 세납 81세로 원적에 들었다.

청화대종사기념관이 들어선 혜운사는 청화 스님의 출생지에 조성한 사찰로, 지난 2020년부터 건축면적 675㎡, 연면적 912㎡ 규모로 기념관, 명상수행관 등을 조성해 청화 대종사의 유품과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창원불교聯, 33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

배한봉 · 이용민 · 이상연 수상 12월 4일 창원 성주사서 개최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법안)가 제33회 산해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2월 4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문화상에 문학상 부문 배한봉 시인, 예술상 부문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행원상에 이상연 경남 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언론학술 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문학상 부문 수상자 배한봉 시인은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 후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펴냈다. 현재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경남문학관의 시창작 지도강사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과 경남 문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 ‘우포 늪 왁새’를 통해 우포 늪을 한국생태시문학의 상징적 공간으로 널리 알렸다.

예술상 부문 수상자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는 도내에서 수학하고 줄곧 활동해온 성악가, 지휘자이자 음악학자, 문화기획자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경남지역은 물론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특히 통영국제음악제 출범 초기부터 실무를 총괄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부문 대표축제로 발전시켰다.

행원상 부문 수상자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왔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장학 사업과 라이온스협회 총재 활동으로 사회봉사를 선도하는 등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다.

시상은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이 문학상 시상을 맡았으며, 예술상은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이, 행원상은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이 각각 시상했다.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은 봉행사에서 “문학은 우리 삶의 맑은 영혼을 드러내는 창작물의 진원지이며 예술은 다양한 창작물을 숙성시켜 아름다운 형상을 낳는 결과이다. 또 행원은 보현행원의 준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바라밀 보살행이다”며 “오늘 수상하신 세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삶의 수범을 보여줬다”고 치하했다.

산해원문화상은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창원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제정한 상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단법인 나누우리 캄보디아서 자비나눔

교실 페인팅 · 칠판교체 등 식수정수시설 준공식도 열려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캄보디아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사)나누우리는 11월 29일에서 12월 4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쩐라옹 초등학교에서 ‘2023년도 캄보디아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식수정수시설 건립사업’을 진행했다.〈사진〉

평균 낮 기온 30도 이상 뜨거운 날씨에서도 나누우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실 외부 페인트 작업, 칠판 교체에 나섰고, 각 교실마다 3개씩의 선풍기를 설치했다.

12월 2일에는 인근 쩐라옹 사원 스님들과 학생, 교사, 마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수정수시설 준공식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만우 스님은 “나누우리의 2세대 식수정수시설을 쩐라옹 초등학교에 건립하게돼 기쁘다”며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히 자라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쩐라옹 초등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의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준공식 참석자 전원에게는 구충제가 전달됐다. 어린이들에게는 슬리퍼, 인형, 학용품 등도 선물했다. 마을 주민들과 선생님들에게는 백미 1포와 우산, 볼펜 등을 지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하동 미서암, 화엄산림 회향법회 봉행

12월 3일 경내 대법당에서 명오 스님 “믿음 씨앗 심어”



하동 미서암(주지 명오)이 12월 3일 경내 대법당에서 제13차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미서암 화엄산림 법회는 2022년 11월 입재해 1년간 13번에 걸쳐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의 저서 〈화엄경 입법계품 지남도 해설서〉를 교재로 선재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공부했다.

미서암 주지 명오 스님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과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룩하기 위해 나아갈 바를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준 용학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이 화엄산림 법회를 발원하고 동참한 미서암 불자님들의 열정으로 옹골찬 믿음의 씨앗 하나를 또다시 심었다”고 회향을 축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원노인복, ‘어르신 뇌 건강 학교’ 성료

9월부터 11월까지 12회 걸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대표 일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석초)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서원노인복지관은 9월부터 11월까지 인지 활동 서비스 한국 에자이와 함께 12회에 걸쳐 지역 내 고령 어르신들의 기억력 증진과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 에자이와 함께하는 뇌 건강 학교’에서는 인지기능 강화 솔루션에 기반한 신체, 인지, 영양, 정서, 사회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서원노인복지관장 석초 스님은 “이번 뇌 건강 학교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1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희망의 빛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는 다양한 공연뿐 아니라 환자치료비 전달로 난치병 환우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해 훈훈함을 더했다.

자선음악회로 난치병·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도

생명나눔실천 으로 함께 사는 세상

10.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 12월 1일 자선음악회
'희망의 빛으로'…500여 명 동참
마하무용단 춤사위·가수 이소원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에 관객 하나 돼
중증질환 환자들에 지원금 전달도

불교계 유일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1일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난치병·이식대기자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4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 회장, 김남명 조계종 제25교구 신도회장, 추성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전 보현자 남양주 불암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과 생명나눔 회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은 2009년부터 매년 동국대일산병원에서 한다솜 희망음악회를 개최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2019년, 10년을 기념하며 자선음악회 형태로 확대해 올해 4회를 맞았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희망의 빛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에게 한 줌의 빛이 되자'는 의미가 담겼다.

자선음악회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막이 열렸다. 생명나눔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소정의 치료비를 전달하고 쾌유를 빌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선정된 환자는 생후 5개월, 뇌종양으로 싸우고 있는 환아로 생후 1개월부터 지금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항암치료를 더 받아야 하기에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스럽던 상황에서 생명나눔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매월 꾸준히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 한 해에만 60여 명에게 2억 원을 전달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했다.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된 2부 행사는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춤사위로 그 시작을 알렸다.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의 태권도 시범 공연에 이어 가수 주권기, 이소원, 임지민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특별무대로 연화직업재활원과 마하무용단이 함께하는 공연도 펼쳐져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선을 다하는 연화직업재활원 발달장애인들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마하무용단장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이 연화직업재활원에 무용 봉사를 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정현숙 후원회장은 "고된 연습 속에서도 무용단 공연을 통해 즐기는 이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삶, 나누는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면서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는 걸음에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측은 동참자들이 자선음악회를 통해 함께 즐기며 잠시나마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며 희망의 빛을 더욱 밝혀나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먼저 25만 회원에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열네 번째 자선음악회를 개최해 난치병 환자와 간절하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음악은 힘과 위로를 주는 동시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라면서 "음악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해 희망의 빛을 더욱 밝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 동참자들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기도 했다. 자선음악회 수익금과 곳곳에 놓여진 모금함에 의해 모연된 후원금 전액은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과 장기기증 등 이식대기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식등록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걷기명상&플로깅,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산사문화예술제, 자선음악회, 소외계층을 돕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통해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도 있다. 농협 053-17-001346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이사장 일면 스님은 "25만 회원들 덕분에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치료비 대상자는 생후 5개월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환아로, 담당 복지사가 전달식에 대리 참석했다.


국악소녀 이소원, 국민가수 임지민 가수가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춤사위는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자선음악회 동참자들은 다채로운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보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따뜻한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자 여러분들의
절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세요.

계좌번호 농협 053-17-001346
예 금 주 (사)생명나눔실천본부
*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본부로 전화 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문 의 02-734-8059



“선재동자처럼 진리 향한 공양 올립니다”

원주 황매선원, ‘선재동자 공양상’ 조성

11월 28일 공양상 제막식 봉행
주지 효산 스님 1년여 간 조성
수년 간 ‘공양상’ 회화 조형 천착
선재동자가 부처님께 연꽃 공양
연꽃엔 헌향할 수 있도록 재현

원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효산 스님이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 (높이133.5㎝×가로 80.2㎝, 브론즈)


효산 스님이 제막식 이후 ‘선재동자 공양상’에 향을 올리고 있다.


‘선재동자 공양상’은 바위 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형태로 조성됐다.



효산 스님은 1970년 강원 홍천 출생. 1991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받았고, 혜경 회옹 스님에게서 법화사상을 배웠고, 사회복지학 · 불교학 · 불교미술을 수학했다. 강원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을 졸업했다. 도올아트타운, 백양사 고불미술관, 한국미술관, 한중문화관 등서 개인전을 10여 차례 열었다. 하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우수상 · 특선(1996), 강원미술대전 문인화 우수상 수상(2011), 대한민국 미술축전 문인화 휘호대회 특선수상(2011), 강원미술대전 조소 부문 특선(2019 · 2021), 강원미술대전 조소 부문 우수상(2020) 등 공모전서 100여 차례 수상했다. 또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 표창(2011), 문화체육부장관 표창(2014)을 받았다. 스님의 작품은 일본교토박물관, 중국 국가도자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석불사, 혜림선원 등에 소장돼 있다. 현재,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 진흥재단 명장심의위원, 한국문화유산 명장 선화장, 중국 츠보이공대학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황매선원을 창건해 수행하고 있다.

공양(供養)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불법승 삼보(三寶)에 공경의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의식은 불교의 한국 전래와 더불어 시작돼 고려시대에는 삼보에 대한 공양이 각종 도량(道場) 또는 재(齋)의 성격을 띠고 많이 행해졌다.

공양의 참된 정신은 대승불교의 수행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蜜) 가운데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재시(財施)를,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자에게는 법시(法施)를, 두려움에 차 있는 자에게는 무외시(無畏施)를 베푸는 것이 참된 공양이라는 것으로 확대돼 갔다. 그만큼 공양은 불교에서 숭고한 신앙행위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반도에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양상들이 조성돼 왔다. 제일 잘 알려진 것이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의 공양보살상(국보)이다. 이 밖에도 대전리 공양상, 개태사지 공양상, 법주사 희견보살상(입상), 강릉의 신복사지 공양보살상 등이 있다.

선화가 · 조형 작가로 활동 중인 원주 황매선원 주지 효산 인명 스님은 오래전부터 ‘동자상 · 공양상’에 대한 선화 · 조형에 천착해 왔다. 동자에게서는 순수하게 불도에 이르려는 모습을, 공양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어서다.

원주 황매선원은 11월 28일 경내 큰법당과 산신정에서 동안거 100일 기도 입재와 ‘선재동자 공양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효산 스님이 1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이 대중에 첫 공개되는 자리였다. 이는 10여 년간 천착해 온 ‘동자공양상’의 결실이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일체중생희견보살공양상’을 발표 · 조성했습니다. 이는 신복사지 공양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앞서는 악착동자, 문수동자 등을 회화, 부조와 환조 조형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은 ‘일체중생희견보살공양상’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산 스님이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은 높이 133.5㎝, 가로 80.2㎝ 청동으로 조성됐다. 황매선원 산신정 인근에 조성된 ‘선재동자 공양상’은 바위 위의 부처님 상에 연꽃을 공양하는 모습으로 재현됐다.

이번 ‘선재동자 공양상’은 공양물인 연꽃이 향로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본래 사라진 향로를 되살리고자 한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본래 공양보살상에는 향을 올릴 수 있는 자루향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훼손돼 없습니다. 대부분 흔적만 남았죠. 전작인 ‘희견보살공양상’을 조성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재동자 공양상’을 조성할 때에는 사라진 향로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는 선향보다는 나무를 깎아 사용하는 목향이 많이 사용됐으므로 긴 자루의 화로형 향로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선향을 널리 사용하는 관계로 이번 작품에는 자루형 향로 대신 연꽃 모양의 향로로 제작했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불 ·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려는 선재동자의 모습과 향을 올리는 향로의 기능적 의미를 담았죠.”

효산 스님의 ‘선재동자 공양상’에 대해 서길헌 〈미술과 비평〉 평론위원(조형예술학 박사)은 “이번에 조성 · 공개된 ‘선재동자 공양상’은 수행승이자 조형 작가인 효산 스님이 전작 ‘희견보살공양상’과 결합해 선보이는 순수한 조형작품이자 새로운 동자승”이라며 “선재동자가 연꽃형 향로와 함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조성된 향로는 불자들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효산 스님이 1년여 간 수행 정진하듯 매진해 완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의 신실한 자세와 지고한 표정 등은 모두 효산 스님이 기도하며 떠올린 동자의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라며 “스님은 선재동자의 공양하는 마음을 형상화해 불자들이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는 원력을 ‘선재동자 공양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효산 스님에게 예술은 곧 수행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동자공양상’을 중심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예술도 또다른 깨우침의 길’이라는 생각은 어린 저를 불문(佛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선재동자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는 구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재동자와 우리 불자들은 닮았죠. 앞으로도 우리네 불자를 닮은 동자공양상 조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甲辰年 용수사 족자 특별보급

장수와건강 그리고 가정화합을 추구하는
저렴하고 깔끔한 고급 족자

크기 – 가로 42cm x 세로 60cm


두루미 1호 / 연꽃 2호 / 봉우리 3호 / 봉우리 4호

가격 상담 절충

▮ 예금주 815040-56-082912 김억찬 (농협)
▮ 예금주 61233-02-034009 용수사 (우체국)

*출고된 작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작품배송 일정은 7~15일 소요됩니다
*작품의 이익금은 재소자의 교정을 위하고 불우이웃을 도우며 사찰의 증축을 위하고자합니다.

1996-9-1 법무부 위촉 청송제2교도소 교정위원
2000-6-15 법무부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패(제193호)
2000-7-6 법무부장관 표창장(제39066호)
2003-9-1 법무부 의촉 경주교도소 교정위원
2005-3-3 경주교도소장 감사패
2008-10-30 법무부장관 표창장(제39066호)
2012-2-9 경주교도소장 표창패(제2012-3호)
2021-10-01-2024-9-30-법무부장관-현교정위원

용수사 010-6365-8780 / 010-9612-1022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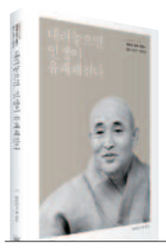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6~12/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7	언어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3	억울한 누명:김성철교수의 불교시 모음	김성철 시집	오타쿠	8	사회속의 불교는 불교속의 사회를	김성철	오타쿠
4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9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틱낫한 스님이 새로읽고 해설한 반야심경	틱낫한/송영희	싱긋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푸른 수행 파란 행복	종원	맑은소리맑은나라

책세상

"내려놓으세요 인생이 오래도록 유쾌해집니다"



내려놓으면 인생이 유쾌해진다
월암문도회 엮음
도서출판 동국 펴냄
2만5000원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기 법문집
용주사 추모다례서 법문집 봉정해
5가지 주제로 핵심적 법문들 엮어
삶의 본질 꿰뚫는 법문들 울림 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월암당 정대 대종사는 혼란을 겪고 있던 조계종단을 화합으로 이끌었고, 굳은 신념과 추진력으로 산적했던 종단 현안들을 해결하며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정대 대종사는 누구보다 진솔하고 인간적이었고, 깊은 수행력으로 삶의 본질을 꿰뚫었던 선지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생전 대종사의 법문은 때론 인자한 스승의 덕담이면서도, 때론 서릿발 같은 경책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방향을 전하는 지남(指南)이었다.

월암문도회와 상월결사가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년을 맞아 생전 설법 가운데 핵심적인 26개를 추려 법문집 〈내려놓으면 인생이 유쾌해진다〉를 동국대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했다. 법문집은 12월 7일 용주사에서 봉행된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봉정됐다.

선별된 정대 대종사의 26개 법문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존재는 없다 △내 마음속 보물창고 △찰간(刹竿)을 꺾으라 △그저 인연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 △마음을 다해야 마음이 비워진다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누구나 법문을 통해 정대 대종사의 진면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법문 하나하나에 소탈하지만 깊이 있는 사유가 생생히 드러난다. 무엇보다 대종사가 생전 역설했던 불교의 참된 진리와 수행자의 자세, 그리고 종교로서의 불교가 이 시대 중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냉철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기'란 무엇인가요? 결국 '환화공신(幻化空身)'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몸을 잘 먹이고 호강시켜 봐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연이 다 하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흩어지면 그 무엇을 자기라 할 것이며, 자기가 없어졌는데 또 그 무엇을 자기 것이라 할 것입니까? 모두 쓸데없고 허망합니다. 부질없는 집착을 괜히 무겁게 짊어지고 있지 말라. 방하착(放下着)하십시오. 탁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인생은 오래도록 유쾌할 것입니다."

세속화 흐름에 빠진 불교계의 세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교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정대 대종사의 올곧은 신념도 법문에서 느낄 수 있다. 종단의 숙원과제였던 대불사들을 일궈냈던 공심(公心)과 결단력, 종단 화합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누구와도 소통하고 품어냈던 포용력 등 정대 대종사를 수식하는 표현은 많지만, 법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모든 면모의 근간에 금강석과 같은 수행력이 있음을 자연히 알게 된다.

"조사들은 화두를 참구(參究)할 때 정말 사무치도록 맹렬하게 하지요. 지독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남들과 시비하거나 호의호식하는 일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 자체가 없는데 시비에 휘말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구두선(口頭禪)만 익혀서 가불매조(呵佛罵祖)만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하기는 잘하지만 정작 공부가 익은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들 흉내를 잘 낸다고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에 대해 왈가왈부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십시오. 알량하게 잘난 척하는 그대를 다 두드려 부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문집에는 정대 대종사의 면면을 알 수 있는 행장과 정대 대종사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무산 대종사 · 원택 스님 · 성일 스님 · 박지원 前 국정원장 · 백도웅 목사의 회고글, 대종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 화보들도 담겼다.

법문집 발간을 앞두고 원적에 든 제자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발간사도 가슴을 울린다. 자승 스님은 정대 대종사가 "불교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항상 약자를 향한 자비와 나눔에 솔선했음"을 강조하며 " '왜 포교당이 번듯한 아파트촌에만 있고 달동네에는 없느냐' 며 안일에 빠지려는 후학들을 경책하던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선명하다"고 스승을 그렸다.

이어 "월암당 정대 대종사 열반 20주기 법문집 〈내려놓으면 인생이 유쾌해진다〉 발간으로 대종사의 훈향을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법문집을 통해 출가발심을 되새기고 부처님 제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점검하고 쇄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자 **월암당 정대 대종사**는?

1937년 전북 전주 출생. 1962년 완주 위봉사로 출가해 전강 선사에게 사미계를, 1967년 양산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여주 신륵사 주지를 거쳐 1973년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에 임용된 뒤 뛰어난 친화력과 명석한 판단력으로 종무행정 실력을 발휘했다. 이어 재정국장, 규정국장을 거쳐 네 차례의 총무부장을 역임하며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975년 조계종 제4대 중앙종회의원에 피선된 이래 무려 8선을 연임했으며, 종회부의장을 거쳐 종회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1999년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후 용서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종단운영을 천명하며 1994년 종단개혁, 1998년 종단사태로 얼룩진 조계종의 상흔을 일신하고자 진력했다. 그리고 임기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착공,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완공, 템플스테이 사업 시작,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발족 등 종단 안팎으로 활약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이사장으로 부임해 '불교종합병원(현 동국대일산병원)' 개원, 장학재단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설립 등 불교 건학이념 구현 및 교육불사에 활동하던 중 2003년 11월 18일 주석하던 관악산 삼막사 월암당에서 열반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선(禪) 수행이란 이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한 연습이에요. 이원론적인 대립과 시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지요. 시비와 분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 새로운 시각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는 이원적 사유를 거치지 않고 직관적 통찰로 바라볼 뿐, 빨가면 빨갛고 파라면 파란 것이지, 빨갛다고 나쁘다거나 파랗다고 좋다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수행은 이해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공부에 좀 진전이 있다고 스스로 '이제 됐다' 며 으스대지는 맙시다. 반드시 명안(明安)의 선지식을 찾아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스승의 조언과 질책을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근 몇 년 사이에 포교당이 그렇게 많이 들 세워졌는데 거기에 리어카 끄는 행상이 안 옵니다. 달동네에서 포교당 하겠다는 스님 못 봤어요. 포교당은 시설 좋은 아파트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포교의 현대화라는 명분이 불교의 귀족화라는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진정한 불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못 먹고 못 입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악행은 아니니까요. 다만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 복 자기가 쓰면 그만입니다. 〈중략〉 재산과 권세로 신도의 가치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의 본령입니다."

"아난에게 찰간을 꺾으라던 가섭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아난은 '내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불교를 가장 많이 안다' 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 때문에 대중과 섞이지 못하고 무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가섭의 말은 '너는 바로 그 자만심 때문에 경전 결집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자만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일침입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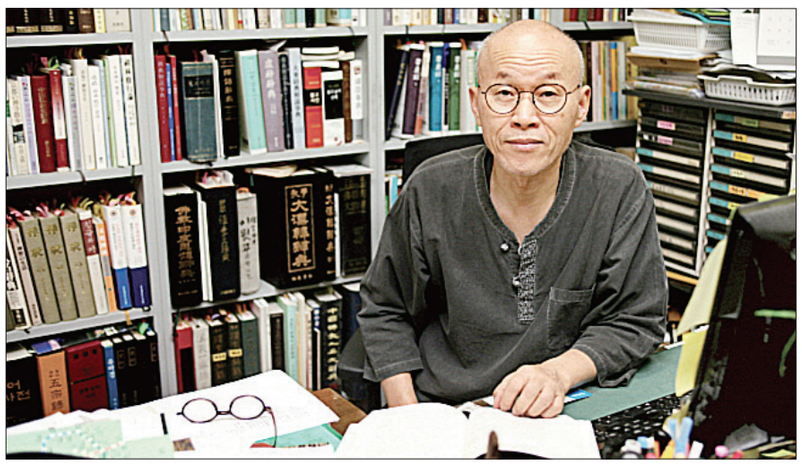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꽁트’와 만나니 불교도 재미있네



불교 지식 꽁트
윤창화 지음
민족사 / 9500원

어렵기만한 불교 용어들을
꽁트, 친절한 해설로 접근
읽다보면 불교지식이 ‘쏙쏙’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삼매, 해탈, 할, 삼독, 일체유심조….

불교의 중요한 용어들은 그냥 말만 들어도 어렵다. 때문에 사람들은 불교를 어렵다고 한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가 한자이기 때문이고, 게다가 개념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불교’라는 어려운 개념에 ‘꽁트’라는 일단 뭔가 재미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장르가 만난다면 어떨까?

〈불교 지식 꽁트〉는 불교계 대표 출판사인 민족사의 윤창화 대표〈사진〉가 불교의 중요한 용어, 언어들에 대하여 70년대에 유행했던 ‘꽁트’라는 장르를 통해 불교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저자는 그냥 말만 들어도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어로 된 글로 읽는다면 그 의미가 확연히 명확하게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꽁트를 끄집어 냈다.

꽁트는 인생의 순간적 한 단면을 예각적(銳角的)으로 포착, 표현한 가장 짧은 소설이다.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글 속에 사물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압축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지 · 유머 · 풍자가 있다. 그래서 꽁트를 보다 보면 웃음이 터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혼이 나 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다.

“무아는 나(我)란 없다는 뜻이다.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五蘊無我, 오온은 무아), 제법무아(諸法無我, 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오온무아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색 · 수 · 상 · 행 · 식 오온에는 항구적인 실체로서 ‘나(我)’,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我空]는 뜻이다. 제법무아는 법공(法空)으로 나를 포함한 만물 역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윤창화 저자는 1965년 오대산 월정사로 입산, 약 13년간 출가 생활을 했다. 8년 동안 월정사 조실 탄허 스님을 시봉하면서 학문의 세계와 만났다. 1980년 불교 전문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창화’는 탄허 스님으로부터 받은 수계명이다.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분에 선정된 〈당송시대 선종 사원의 생활과 철학〉〈선불교〉〈왕초보, 선 박사 되다〉 등 선(禪)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 저자는 “선(禪)이야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날카롭게 뚫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과 유머를 통한 지식 전달인 꽁트와 잘 통한다고 하겠다.

책 속의 밑줄 긋기

● **고(苦)**
남편의 외박질
아내의 춤바람
끝도 없이 떨어지는 빚투 주식이다.
불면증 환자의 기나긴 밤
대입에 낙방한 고3 학생의 얼굴
직장에서 쫓겨난 40대 가장의 뻥 뚫린 가슴이다.
아, 인생.

∵ 고(苦, 괴로움) - 불교에서는 일체(一切)는 개고(皆苦)라고 한다. 또 생로병사 4고(苦)에, 애별리고(愛 別離苦,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고통), 원증회고(怨憎會苦, 대척 관계와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부득고(求不得苦,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데서 겪는 고통), 오음성고(五陰盛苦, 욕망과 불만족에서 겪는 고통)를 합하여 모두 8고(苦)라고 한다.

불교의 목적은 이 고(苦)에서 벗어나자는 데 있다. 그리고 일체개고가 시사하는 것은 삶은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세계를 성취하라는 것이다. –18쪽

● **번뇌**
15세 소녀의 여드름
아! 이것만 없다면
세상은 모두 내 것인데.
진수성찬이 가득한 식탁
이럴 때는 배가 하늘만 했으면 좋겠다.
번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정신 영역
고상함과 천박함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 번뇌(煩惱) - ‘잡념(雜念)’, ‘잡생각’, ‘공상’, ‘쓸데없는 생각’ 등을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근심 · 걱정 · 번민 · 갈등 · 욕망 · 욕심 · 망설임 · 불안감 등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모두 번뇌라고 한다. 번뇌는 육식(안 · 이 · 비 · 설 · 신 · 의)이 그 대상인 육경을 만나서 발생한다.

눈(眼)으로 사물을 대하면 호오(好惡)의 차별이 생기고 소유욕 · 욕망 등을 위해 애를 쓴다. 여기서 번민 등이 발생한다. 번뇌를 퇴치하는 방법에는 화두, 위빠사나, 염불 · 독경 · 사경 · 경전 탐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불교의 모든 경전과 법문은 결국 이 번뇌를 다스리는 가르침이다. 번뇌가 다하여 없어진 상태를 해탈이라고 한다. –84쪽

만다라와 함께 떠나는 내면 탐색 여행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
임시연 지음
담앤북스 / 1만6800원

‘만다라(Mandala)’는 산스크리트어의 ‘만다(Manda)’와 ‘라(la)’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다. ‘만다’는 마음의 중심, 본질이라는 의미이고, ‘라’는 완성하다, 공간화한다는 의미다. 결국 ‘만다라’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 표현된 그림, 도상, 공간 등을 뜻한다. 현대에 이르러 만다라는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에 의해 본격적으로 심리치유와 연결됐다. 그리고 만다라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명상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실제 심리치료 현장에서 그 치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은 창의적인 만다라 도안과 흥미로운 설명을 통해 독자가 직접 내면 탐색 여행을 떠나도록 안내하는 컬러링 심리치유서다. 단순히 색칠만 하고 끝나는 다른 컬러링북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각각의 의미가 담긴 만다라를 색칠할 때 얻는 심리치유 효과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장 중간중간에 수록된 실제 심리치료 사례와 부록의 만다라 리딩법을 통해 독자들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만다라의 공간은 깨달은 마음자리에서부터 작고 볼품없는 마음 자락까지 모두 받아안습니다. 그 속에는 가능성을 품은 특별함이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는 사라짐이 함께 있습니다. 만다라는 규정하지 않기에 치유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 서문 중에서

임시연 저자는 “초보자를 위한 기본적인 컬러링 기법부터 시작해 한 달 동안 만다라와 함께 심리치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서 “책에 소개된 47가지 다양한 만다라가 지닌 명상 효과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색칠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직접 만다라 도안을 그리는 작업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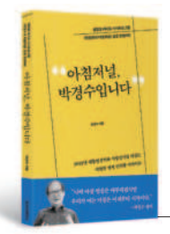
〈만다라 명상 컬러링북〉과 함께 소중한 내 마음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만다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자.

▲임지연 저자는…

미대를 졸업하고 작가를 꿈꾸던 시절 미술치료를 공부하면서 만다라를 처음 만났다. 30대를 지나 인생의 큰 고비가 찾아왔을 때, 만다라를 통한 내면 작업을 통해 강렬한 자기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됐다. 무의식이 발현된 만다라 작업 경험은 작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를 졸업하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에서 불교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만다라에 담긴 치유의 힘을 믿으며 만다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만다라심리연구소’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빛을 밝혀주는 만다라 명상 지도사의 길을 걷고 있다.

임은호 기자

前방송기자가 전하는 정치 · 방송가 막전막후



“아침저널, 박경수입니다”
박경수 지음
읽고쓰기연구소 펴냄
1만6800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수입니다.”

BBS불교방송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불자와 국민들에게 시사정보를 전했던 프로그램 〈아침저널〉의 앵커 박경수 前 BBS불교방송 보도국장(現 강릉영동대 교수)이 이번에는 작가로 돌아왔다.

박 前보도국장은 시사프로그램 앵커로서 아침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한 만 4년여의 시간을 개인적인 서사와 결합하여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주요한 이정표가 된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의 의미를 톺아보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열 책을 직접 기획하고 집필해 세상에 내놓았다.

주요 정치적 고비마다 유력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어떤 정치적 파장과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당시 언론보도를 토대로 비교적 상세히 그리고 있다. 특히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던 저녁 만찬의 비화, 그리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의 당내 경선, 여야 후보간 경쟁적 인터뷰 공방이 담겨 있다. 우상호 vs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토론회를 직접 진행하면서, 오세훈 · 나경원 등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개별 연쇄 인터뷰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눈길을 끈다. 대세를 반전시킬 수 없었던 민주당 후보의 본질적 한계와 함께 나경원 후보 반발에 인터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오세훈 후보와의 일화가 당시 국힘 경선의 치열함을 보여준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인터뷰 영향도 담겨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의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던 아쉬움과 이재명 후보와의 대선 직전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특히 2007년 BBS 법조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 김만배와의 첫 만남과 10년 후 2017년 다시 만났을 때의 느낌과 일화는 그로테스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유은혜 前 부총리, 우상호 의원, 고 노무현 前 대통령, 배금자 변호사,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배종찬 여론조사전문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지원 前 국정원장, 박홍섭 前 마포구청장 등 정치인 법조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인터뷰이들과의 인연이 시나리오처럼 그려져 있고, 고 김근태 장관의 딸 병민 씨와의 과거 인터뷰 전문과 함께 과거 칼럼들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애쓰는 현직 언론인들을 격려하는 최근 글도 실었다.

끝으로 〈박경수의 아침저널〉이 만들어지는 생생한 과정에 대한 당시 메인 작가의 글이 실려 아침방송의 치열함과 생생함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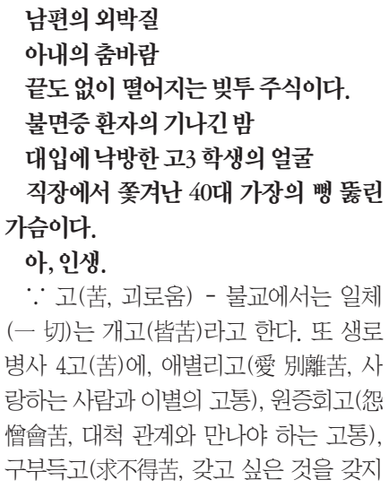
저자는 “치열했던 아침 시사프로그램의 얘기들을 정리하고 싶었다”며 “프로그램 성격상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앵커와 제작진이 중립을 지키며 뚝심을 갖고 버틸 수 있도록 시청자, 청취자들이 힘이 돼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
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원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45 아디카야의 눈물 1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이석원으로부터 아디카야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디카야의 검'은 없었다.

아디카야의 검은 없었다

-어느 날 한 사문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그 소리야.

심 작가를 놀리듯이 알겠느냐는 표정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알겠는가?

-무엇을?

심 작가가 되받았다.

-이와 같다. 부처님은 영혼이 없다고 했고 나는 있다고 한다. 어쩔 테냐?

나는 눈을 감았다. 무슨 말인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저 언덕으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쩔 테냐? 그 문제를 풀어야 내 본래면목을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내 심중을 읽은 듯이 입을 열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디카야를 찾아야 한다 그 말이다. 그 칼이 너의 무명을 잘라내고 잘라내어 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칼을 찾아 이곳까지 와 무쿠암의 동굴까지 걸어 들어갔다 그 말이다.

-그럼 아버지의 예언이 맞았다는 말 아닌가?

심 작가가 또 나섰다.

-그렇지. 그 영감이 이겼지. 그 영감은 악마처럼 내게 다시 말하고 있었으니까. 아디카야는 본초불의 이름이다.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칼이 아디카야이다. 그 칼은 임자가 아니면 결코 몸을 주지 않는다. 바로 원초불의 칼이기 때문이다. 그 법신은 이 세상을 위해 칼을 들고 오게 되어 있다. 세상의 수많은 붓다들이 그 칼의 임자가 자신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도전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칼을 가졌다?

역시 심 작가였다.

-그러나 칼은 없었다. 그때 깨달았지. 바로 그것이 본래면목이라고. 칼은 없었어. 그런데 칼이 있다? 그게 불가사의지. 그게 불교였어. 그런데 미치겠더군. 이곳으로 온 어느 날 그 칼이 든 만다라를 보수해 달라고 했지. 참 인연이라는 것이 묘하더군. 아버지가 영 거짓말쟁이는 아닌 것 같기도 했고…. 하하 거기 있더군. 탱화 속에 부처의 칼이 있었어.

그의 말에 놀란 네 사람의 시선이 엉켰다.

-그런데 그것은 칼이 아니라 글이었어.

-글?

갑자기 그가 말을 바꾸자 오오스마 기자가 비로소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자답게 지켜보다가 무슨 소리냐는 음성으로 되물었다. 거의 반사적인 물음이었다.

-칼이 아니었다?

나도 믿어지지 않아 물었다.

그가 어이없다는 듯이 하하하고 웃었다.

-이거 실망들이 큰 모양이네. 아니야. 분명히 글이었어.

-글이라니? 칼이 아니고?

오오스마 기자가 확인하듯 물었다.

-맞아. 칼이 아니라 글이었어. 아직도 그 글을 기억하고 있지. 마따랑 빠따랑 한뜨와…. 하하하 무슨 소린지 안다면 그게 거짓말이지. 그 길로 이곳으로 왔거든. 그녀가 여기 있었으니까. 공양주의 딸 미순이.

-그럼 시오레라는 여자는? 아내가 아니던가?

심 작가가 물었다.

그가 아내? 하고 되뇌다가 웃었다.

-아니야. 그 아이는 내가 돌보았던 여자지. 그뿐이야. 내가 이곳으로 와 미순이와 하나가 되었을 때까지도 나는 그녀가 부주의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하기야 그녀도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무시 이래의 습기가 욕정이 되어 두 사람의 가슴속에서 타고만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이야. 며칠 전에야 알았지. 그녀의 코가 문드러지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를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오오스마 기자가 화난 사람처럼 물었다.

-치료? 이곳이 어디야? 인도야. 오랜 세월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아직 발병 원인도 모르는 환자들이 수두룩해. 돌연변이 균들이 급성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마당이야. 감염 즉시 혈관이 터져 죽는 사람도 있어.

-그래 이제 무엇이 남았나?

오오스마 기자가 허망한 어투로 물었다.

-무엇이 남았겠는가? 오로지 허망뿐. 하지만 이 세상도 살아볼 만한 것이더군. 우리를 이해해 주면 좋겠군. 어차피 교도소로 간다고 한들 사라질 몸이니. 부디 길동무나 하게.

그는 말을 마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이내 치뜨는 눈가로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이를 악물고 있다가 내가 다시 나섰다. 그러자 그가 가까스로 눈을 떠 나를 쳐다보았다.

-그 성물 말이오.

-성물? 성물이라니?

-그대 만다라 속의 어떤 물건을 가져왔다면서?

-참, 말을 하다 말았군. 그렇지. 그것을 가져왔지. 그 난해한 글. 어쩔 수 없이 바랑에 넣어왔었지. 만다라를 뜯으니까 그것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석관 속의 성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나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 분노 같은 것이 슬슬 기어 올라옴을 느끼며 물었다. 정확히 분별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 성물을 만다라 속에 넣은 임자는 그 후 얼마 안 가 죽었던 모양이야. 만다라를 뜯으니까 작은 상자가 나오더군. 그 주위에 성물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 알았지. 이것이 바로 그 성물이구나 하고.

-그래서 상자 속의 성물을 슬쩍했다?

오오스마 기자가 기자답게 넘겨짚었다.

-물론이야. 홀로 작업했으니까. 금토를 뿌리고 금줄을 치고. 부정 탄다고 누구도 엿보지 못하게 하였지. 웃기더군. 속의 것을 드러내고 내가 가져가는데도 그 사람들 그걸 몰라. 물론 조실이 비밀을 지키다 죽었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지. 그것을 당연히 문화재에 넘겨야 하겠지만 난 쫓기는 몸이었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

-그럼 그것이 아디카야 검이라고 어떻게 단정하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확인하듯 내가 묻자 그가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내어 웃었다.



삽화 · 김상규

-하하하 정말 미친 것이 아닌가. 어리석기는…. 하긴 미칠 만하지. 그러고 보니 그걸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로군.

-그것은 지금 어디 있나?

그의 입꼬리에 지독한 조소가 물렸다.

-세상 정말 우습구나. 우스워. 만다라에서 나온 물건을 보면서 깨달았지.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애초에 그런 것은 없었어. 부처님의 방편교설이었지. 거기에다 내 아버지 지안 금어 그 천하의 그림쟁이가 한술 더 떴어. 아디카야를 취모리검화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야. 내가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 텅 빈 석관. 그 텅 빔이 그들의 대답이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가 그래도 모르겠느냐는 듯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직도 속고 있는 그대의 집착을 칼질하고 있는 것이야. 텅 빈 관 속에 우리들의 허망한 집착이 누워 있었어. 본시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이야. 그게 아디카야의 본질이었던 것이지. 그때 깨달았지. 아하 이것이 불법의 핵심이구나. 그렇게 진리의 당체를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그들은 인간의 허망한 집착을 베고 있었구나.

-그럼 그대는 난타의 환생자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나운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그의 언사에 반응하는 나의 물음에 그의 입가에 다시 조소가 물렸다.

-내가 난타의 환생자라고? 그랬지. 어떤 대덕이 한 말이 있지.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그의 말만이 판잣집을 맴도는 것 같았다. 죽어가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 왜 사람을 데리러 간 노인네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가 금방 숨을 멈춰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밖을 흘끔거렸다. 마지막 힘일지 모른다. 모든 힘이 입으로 뻗치고 있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게 진리에 집착하면 그 또한 죄가 된다고 했지. 그게 공의 모습이라고 말이야. 하기야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한 방편이 어디 있겠는가. 부처가 우릴 속였다? 아난과 달마가 우릴 속였다? 대덕은 한술 더 떴어.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의 스승, 나의 사탄이시여. 그렇지. 사탄이 우리를 부처 되게 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부처가 올 이유가 없지. 이미 본래면목인데 그가 오면 어떻고 오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인가.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여야 하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야 한다고 하던 이가 누구였나. 그러면서도 무아(無我)를 설한 부처와 대립각을 세워? 유아를 설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그 대덕 아니야? 어이없는 일이지. 그 영감 영혼이 있다고 했거든. 부처는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고 조주는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구자부불성 화두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영혼의 문제로 조주가 되시겠다? 어림없는 수작이지.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겼다. 내게는 윤회를 인정하는 대선사들을 취재하면서 나름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이 있었다. 그 선사의 법문을 대할 때마다 힌두사상과 불교사상을 혼동하고 있거나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다. 부처님이 생존할 당시의 불교와 현재의 불교는 다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마당이지만 그렇게만 재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대만의 관점일 수도 있지.

좀 전부터 슬슬 올라오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소리치자 그가 공허하게 웃다가 입을 열었다.

-하긴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DNA 한 방으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판에….

-그러나 종교를 과학적으로만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 그렇다고 하자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가. 방편 교설!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와 묻더군. 네놈이 윤회를 부정한다면 네가 난타 존자가 아니라는 해답 또한 어딨느냐? 그 바람에 나도 벽을 보고 돌아앉았어. 그렇게 부정했었는데 비로소 나의 원죄가 보이더군. 혹자는 선정이 뇌의 기능일 뿐이라고 운운하더라만…. 우리가 살며 짓는 업장. 그것이 윤회였어. 그것이 내 마음속 무늬였다는 말이야. 업장. 무아를 향한 발걸음. 어느 날 새벽 보이더군. 정수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더니 켜켜이 쌓인 내 업장이 보이더라는 말이야. 그때 깨달았지. 삶의 진실은 자아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면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윤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 구속이 곧 윤회였어. 난타의 번뇌가 내 마음속 무늬였어. 그 마음의 무늬가 나의 번뇌였던 것이야. 내가 그 무늬를 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난타적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이 모순된 삶을 모순 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그제야 안 것이야. 〈계속〉

불기 2568(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묘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8(2024)년 갑진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주지사	010-3697-2441	김용덕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㉓ 김장



▶한줄 요약
선방의 동안거는 김장과 긴밀하게 묶여있다. 겨울철 채소가 귀하던 시절 김치는 삼동결계의 가장 소중한 찬이요, 김장은 연중 가장 큰 울력이었다.

김장 함께 해야 삼동결제 자격 있다



매해 12월초 진행되는 조계사 '김장 나눔전'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김장 울력, 삼동결제의 공부할 자격

선방의 동안거는 김장과 긴밀하게 묶여있다. 겨울철 채소가 귀하던 시절에 김치는 삼동결제(三冬結制)의 가장 소중한 찬이요, 김장은 연중 가장 큰 울력이었다. 추운 날씨에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그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니, 선방 스님들 사이에 '삼동결제는 김장을 함께 해야 공부할 자격이 있다' 는 불문율이 있었던 것이다.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방의 김장날짜는 결제 직전에 잡히고, 방부(榜付) 들인 선객들은 김장날짜를 미리 파악해 그때 맞추어 들어갔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김장에 빠지면 벌칙으로 콩 한 말을 내는 곳이 있었는가 하면, 며칠간 스스로 낮좌선을 포기하고 땔나무를 하여 송구스러움을 면하기도 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일반사찰에서는 동짓달까지 더 추워지길 기다렸다가 김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쌀과 김치 · 된장만 있으면 겨울 나는 데 걱정 없다"는 스님들의 말처럼, 사찰 후원의 한 해 대사(大事)는 '김장' 과 '장 담그기' 이다. 냉장고 없이 김장김치를 초파일까지 먹었고, 다음 김장 때까지 먹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작은 절에서도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채소밭을 일구어 배추 · 무 · 고추 등 김장거리를 최우선으로 길렀다.

김장을 비롯한 사중의 울력에는 전 대중이 동참하는 것이 오랜 철칙이다. 산나물을 뜯고 채소를 수확하는 일상의 울력은 행자와 학인들이 주로 맡았지만, 사중 전체가 동원되는 '대중 울력' 이 있을 때면 노스님도 예외가 없었다. 따라서 "대중 울력에는 죽은 송장도 일어나야 한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는 노스님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대중생활의 규범이었다.

따라서 며칠 전부터 발우공양을 마친 대중에게 김장 공지를 거듭하고, 당일이 되면 운집 목탁을 쳤다. 이에 '김장 도감(都監)' 의 지휘 아래 신도들도 동참하여 배추와 무를 뽑아 나르고, 소금에 절인 다음, 속을 넣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김장이 며칠에 걸쳐 이어지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들도 현장을 지켜보고 격려하는 일로 힘을 보탰다.

이때 사찰마다 노스님들이 맡은 역할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김장김치를 짜게 담그도록 감독하는 일이었다. 소금을 들고 다니며 절인 배추 위에 다시 뿌리는가 하면, 밤중에 대중 몰래 김칫독마다 소금을 한 바가지씩 붓곤 하였다. 반찬거리가 턱없이 부족하니 김치를 헤프게 먹지 않도록 짜게 만들어 오래 먹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고춧가루는 적고 소금은 많이 넣어 짜디짠 김치를, 스님들은 '소금 할배, 염조(鹽祖)' 라 부르기도 했다. 따라서 노스님들은 그 시절의 김치맛을 회상하며 "물을 부으면 그대로 김칫국이 됐다", "김치 한 쪽이면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사정은 197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상원사 김치가 짜냐, 주안 염전의 소금이 짜냐"고 할 정도로 당시 상원사 김치도 짜기로 유명하였다. 그런 김치를 식욕 왕성한 젊은 스님들은 나물 먹듯이 먹었다고 하니, 우리의 김치는 궁핍한 시절 출가자의 수행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장은 전 대중 울력이 오랜 철칙
노스님은 배추에 소금 뿌리며 감독
헤프게 먹지 못하기 위한 궁여지책
1만 포기 김장 울력한 농사로 충당

검박한 수행자의 음식들

먹는 시기에 따라 김장에 쓰는 양념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정초까지 일찍 먹을 김치에는 찹쌀 · 밀가루 풀을 쑤어 사용하고, 청각이나 갓을 넣어 시원한 맛을 내거나 무채와 삭힌 고추를 넣기도 했다. 영호남 사찰에서는 찹쌀풀 대신 늙은 호박을 고아서 거른 물을 쓰는가 하면, 호박이 없으면 다시마 · 무 우린 물을 내었다.

이에 비해 오래 두고 먹을 김치에는 풀이나 무채 등을 쓰지 않는 대신, 소금을 많이 넣어 짭조름해야 초파일이 돼도 군내 없이 개운하게 먹을 수 있었다. 배추가 무르지 않도록 청각이나 망개 잎 등을 챙겨 넣고, 소금 외에 가능하면 다른 양념 없이 맑게 담가야 시원한 맛을 낼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장 빨리 먹는 것은 찹쌀풀, 그다음은 삶은 호박, 마지막까지 먹는 것은 맹물에 소금과 고추 씨앗만 넣고 담그기도 했다.

사찰음식도 지역 특성을 따르게 마련이라, 호남지역 사찰의 경우 김치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상대적으로 많고 맛도 더 좋았다. 찹쌀풀에 무를 갈아서 넣고, 형편이 좋은 절에서는 콩을 삶아 넣기도 했으며, 민가에서 넣는 젓갈 대신 간장을 썼다. 간장에 찹쌀가루를 풀어 다시마 · 표고버섯 · 무 등을 넣고 큰 솥에 고아서 담그는 것이다. 특별한 김치에는 삶은 호박에 홍시 · 배, 들깨 · 참깨 간 것을 넣기도 하였다.

대부분 사찰은 포기배추에 소를 넣어 김장김치를 담갔지만, 형편 따라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도 살필 수 있다. 일손이 부족한 절에서는 포기마다 일일이 소를 넣기가 힘들어, 항아리에다 절인 배추를 한 줄씩 넣고 그 위에 양념을 끼얹었다. 그렇게 담근 김치라도 신도들은 "마을 김치보다 절 김치가 훨씬 맛있다"며 좋아했다. 스님들은 이에 대해, 커다란 항아리에 많은 양을 담그니 서로 어우러져 발효되면서 감칠맛이 나는 것이라 한다.

또한 많은 신도가 몰리면 포기김치로 감당이 되지 않으니 보쌈김치처럼 담그는 사찰도 있었다. 배추를 썰어서 막김치로 양념을 버무린 다음 마지막에 큰 배춧잎으로 싸는 방식이다. 이렇게 담그면 일일이 썰지 않아도 되고, 한 상에 하나씩 꺼내놓기도 좋았다. 후원 대중이 모자랄 때는 김치를 미리 잘게 썰어서 단지에 가득 담아놓고, 먹을 때 국자로 떠서 찬그릇에다 담아내기도 하였다.

김장 후에 남은 배춧잎 · 무청을 말린 우거지와 시래기 또한 일 년을 함께할 요긴한 부식이다. 삶아서 된장을 풀어 끓이면 훌륭한 된장국이 되었고, 잘게 썰어 밥에 얹으면 간장만 있어도 밥맛이 좋았다. 김치로 끓인 시원한 김칫국과 구수한 청국장찌개 또한 스님들이 즐기는 특별한 맛이었다.

무는 특히 활용도가 높은 채소이다. 생무를 쪼개어 선방에 간식으로 들여보내면 환영을 받았고, 스님들은 "무 하나로 백 가지 반찬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김장할 때 담근 동치미와 무김치는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고, 꼬들꼬들한 식감의 무말랭이와 무장아찌 또한 언제 먹어도 별미였다. 통무를 큼직하게 썰어서 가마솥에 깔고 양념을 얹은 뒤 국물이 짜글짜글하게 푹 고아 먹는 '무왁저지' 는 스님들이 으뜸으로 꼽는 찬 가운데 하나이다.

사찰 김장에서 빠질 수 없는 무짠지도 있다. 고춧가루 없이 담가서 주로 발우를 닦아 먹는 데 썼지만, 평소에도 스님들이 즐겨 먹는 김치 가운데 하나이다. 크지 않은 통무를 소금물에 짜게 담그면 여름철까지 아삭하게 식감이 좋았다. 물에 우려내어 짠맛을 빼고 먹거나 곱게 썰어서 물을 부어 먹기도 했는데, 검박한 그 모습이 천상 수행자의 음식이라 할 만하다.

소금김치와 싱건김치

오래 두고 먹을 김치는 땅에 김장독을 묻고, 봄이 되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은 곳간에 저장하였다. 겨우내 보관해두고 먹을 무와 배추도 땅속에 저장하여, 구덩이를 파서 짚이나 가마니를 깐 다음 묻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썼다.

큰절에는 대개 곳간 안에 땅을 파서 여러 개의 독을 저장하는 '토광' 이 있었다. 아예 깊은 굴을 파서 지하에 보관하는 '암광' 도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지하실 개념이 아니라 대개 낮고 완만한 지붕 부분을 흙으로 덮은 곳간이었다. 토광은 특히 입구를 탄탄하게 잘 만들지 않으면, 여름철 장마에 물이 새어 들어가 항아리가 둥둥 떠다니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장독대 근처나 담장 아래에 땅을 파서 김장독을 묻을 때는 입구만 나오도록 하여 짚으로 뚜껑 위를 덮고, 다시 나무와 짚 이엉으로 지붕을 만들어 얼지 않도록 잘 갈무리하였다. 옛날 김장독은 아주 커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몸을 깊숙이 넣어 김치를 꺼내다가 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마당에 묻어놓은 김장독은 곧잘 젊은 스님들의 서리 대상이 되었다. 강원의 규율이 아무리 엄격해도 학인들의 장난은 끊이지 않았고, 배고픈 시절이었기에 대부분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본 절은 물론 인근 암자의 동치미와 물김치를 호시탐탐 건져 먹고 나중에는 국물만 남아, 대중공사가 벌어지는 일도 사찰마다 흔했다.

김장 때면 엄청난 양의 무채를 썰어야 하니 학인들끼리 '무채 썰기' 내기도 곧잘 벌어졌다. 솜씨 좋은 몇 명의 학인이 누가 무채를 더 빨리, 또는 더 가늘고 균일하게 써는지를 겨루는 내기이다. 그런데 빨리 마칠수록 그 무채는 기계로 썬 듯 고르고 예뻤다. 또한 가늘게 썰기를 겨룰 때면, 무채를 던져 천장에 붙은 이가 승자였다. 이겨도 누가 상을 주는 게 아니건만 도반들끼리 재미있게 일하다 보면 많은 일도 쉽게 지나갔다.

1980년대 중후반 운문사의 자료를 보면, 당시 김장은 배추김치 · 동치미 · 총각김치 · 깍두기 등을 이틀간 담가 50개의 김칫독에 저장했는데 모두 농사지은 것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 2000년대 초에도 사정은 비슷하여 채소 대부분을 학인들이 일구어 반찬으로 썼으며, 김장김치는 배추만 1만2천 포기가 소요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운문사 밭에는 학인들이 가꾸는 배추 · 무 · 고추를 비롯해 고수 · 가지 · 아욱 · 토마토 · 호박 등이 빼곡히 자란다. 특별히 울력이 많은 날이면 빵 · 국수 · 피자 등의 새참이 나오고, 김장 때면 붕어빵 장수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오전부터 3시까지 종일 붕어빵을 구워주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십여 년 전만 해도 큰절에는 배추 만 포기 이상 김장하는 곳이 드물지 않았다. 이제 김치 없이 밥을 먹지 못하던 세대가 교체되어, 김치 소비량도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 한편으로 온전히 한국인의 토종음식이었던 김치가 세계인들에게 환영받아 인류 보편의 맛으로 전환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김치 한 쪽으로 밥 한 그릇을 먹었던 '소금김치' 에서부터 빵과 함께 먹는 '싱건김치' 에 이르기까지, 김치의 변주와 함께 사찰 김장문화의 모습도 어떻게 변화되어갈지 궁금해진다.〈끝〉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염불도 나이가 들면 힘이 들고
성대에 무리가 가지요!

그러나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5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㉓ 관세음보살의 도상학



▶한줄 요약
중생의 모든 악업을 유발시키는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꿰뚫어 보고, 이것을 불식시키는 신성한 힘이 '자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 에너지의 화신이 우리가 익히 아는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 자비로 중생 굽어보시니…

모든 '부정적 감정'의 이면에는 '공포'가 있다.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들뜬 마음, 후회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 사견의 마음 등, 다양한 부정적인 마음(不善業 또는 不淨業)이면에는 공포 또는 두려움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존재적 공포와 두려움

내가 존재하지 못할까하는, 내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존재하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다. 현재를 살면서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부정적 감정의 단골 대상이나 단골 사건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의 번뇌인가? 무슨 복잡다단한 인연이 있는 걸까? 운명의 장난일까? 난해한 심리의 근본을 파헤쳐야 하나?

아니다. 그것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현재의 느낌(수 · 受)이다. 범인(원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다시 정리하면, '①부정적인 감정 또는 생각 ← ②존재에 대한 공포(또는 두려움) ← ③불편한 느낌(불선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요소는 '← 역 화살표'로 표시했다)'의 순서이다. 촉(觸: 나와 세상이 만날 때, 즉 육근과 육경이 만날 때)은 수(受: 느낌)를 유발시킨다. 우선 대략적인 전개 과정을 말했으나, 보다 상세하게 들여다보자.

느낌은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발달돼 있다. 촉이 일어나는 즉시, 순식간에 '좋다 · 싫다 · 중간이다'의 셋 중 하나로 반응한다. 우리는 특히 부정적인 또는 불편한 느낌에 예민하다. 이는 생존본능(생존에 대한 집착)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기가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불편해도 자지러지게 우는 것은 생존하기 위한(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

특정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얼른 내 몸의 느낌을 체크해 보자. 불편하고 힘든 느낌이 드는 곳이 없는가. 답답한 가슴의 느낌은 없는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긴장이 엄습한 것은 아닌가. 불편한 느낌이 오는 순간에 긴장이 유발되고, 이는 섬광의 속도로 내 기억 창고(상온 · 想蘊: 기억과 인식의 저장고)에서 이러한 유사한 긴장을 유발했던 사람이나 사건을 떠올린다. 몸이 마음을 동원해 경계경보를 켜는 것이다.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은 수, '느낌 그 자체로만 관찰'하면, 거기에 갈애(집착)이 들러붙지 않는다. 이것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업의 연결 고리는 끊긴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석가모니 붓다께서 말씀하신 사념처(四念處) 수행이다. 사념처(①신身, ②수受, ③심心, ④법法)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인 '①몸 관찰(신념처)와 ②느낌 관찰(수념처)'이 지금 이순간의 무상 · 고 · 무아를 보는 수행의 시작이자 번뇌를 막는 첫걸음이다. 나를 정화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면 애꿎은 상념의 대상(허상)에 탐 · 진 · 치로 반응해 혼탁한 부정업을 계속 키울 일이 없다.

아무것도 들러붙지 않은 수, 느낌 그 자체로만 관찰하면 오온의 전개를 일어나지 않는다. 통찰지가 작동하는 시점에서 끊어진다. 오는 느낌을 '느낌 그대로만의 생멸(일어남과 사라짐, 무상함)'을 관(觀)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부정적인 감정과 고통에서 해방된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3차원의 공간에 노출돼 사는 한, 느낌을 초래하는 촉의 유발을 막을 수는 없겠다. '촉은 바로 느낌으로 이어지고, 불편한 느낌은 몸에 경계경보를 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정적인 번뇌로 직결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각 단계(촉→수→반응→주의쏠림과 잘못된 인식의 일어남→공포(상想)→부정적 번뇌(行)마다 들러붙는 것이 '갈애(또는 집착)'이다. 이러한 집착의 에너지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集聖諦)'인데, 일련의 과정마다 다음 단계를 유발시키는 액셀(가속 장치) 역할을 한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양한 부정적 마음들을 가지고 와 우리는 무지, 갈애로 전전하며 윤회
관음보살, '광명의 그물'로 중생구제

마음은 강한 파장의 기억으로 '자재'

마음은 스스로 끊임없이 존재하려고 번뇌를 일으킨다. 파장이 강렬한 번뇌일수록 좋다. 즉, 가장 고통스럽거나 충격적인 번뇌일수록 마음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다. 마음은, 그로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건 힘들건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 계속 존재하면 그만이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조그마한 자극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떠올려 나를 정신없이 휘두른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오욕자재(五欲自在)'라고 한다. 중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욕망(성욕 · 식욕 · 수면욕 · 재물욕 · 명예욕)이 '자재', 즉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컨트롤 불가능하다. 이러한 오욕의 이면에는 '생존욕'이라는 가장 깊고 근원적인 욕망이 존재한다. 생존욕은 무명을 바탕으로 나온다. 무명이란, 현상(무상 · 고 · 무아)를 보지 못하는 '자각(깨달음)의 빛이 없는' 어리석은 마음(치癡)을 말한다.

〈붓다차리타〉에는 오욕자재왕(五欲自在王)이 오욕의 화살(五箭)을 쏘아, "마치 바람처럼 조금이라도 스치가만 해도 마음은 미친증세를 낸다(小觸如風吹 其心發狂亂)"라고 쓰여 있다. 이렇듯 감각이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오온(五蘊, 색 · 수 · 상 · 행 · 식)의 반응은 섬광처럼 전개일로이다

그러니 미워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의 활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미워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원리를 간파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하는 몸과 마음에 나는 하릴없이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자재하는 몸과 마음의 활동에 계속 놀아날 것인가, 아니면 벗어날 것인가. 그 방법은 석가모니 붓다께서 구구절절 설해 놓으셨다.



그림① 1310년 조성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관세음보살의 얼굴 부분. 일본 가가미진자(鏡神社) 소장된 문화유산으로 현재 큐슈국립박물관 기탁 보관돼 있다.

"모든 사람들은 무지와 애욕 때문에 미혹의 세계를 윤회하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해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에 대해 조금의 싫증도 내는 일 없이 애착하고 있지 않은가. 또 실제로는 자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아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이리해 그들은 탐심 · 노여움 ·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불꽃을 태우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상태이므로 그들에게는 의지할 데가 없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 오직 맹목적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할 따름이다."

중생의 모든 부정업(또는 불선업, 악업)을 유발시키는 '자기 존재(유존 · 有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꿰뚫어 보고, 이것을 불식시키는 신성한 힘이 '자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 에너지의 화신이 우리가 익히 아는 '관세음보살'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대목을 보도록 하자.

'보살'이란 무엇인지 또 보살이 상징하는 '자비'란 무엇인지를 묻는 선재동자에게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답한다. 안쓰러운 눈으로 아기 같은 선재를 굽어보며(그림①, ②) "나는 대비법문광명(大悲法門光明)의 행(行)을 성취했다. 그 대상에 따라 그 앞에 나타나, 큰 광명의 그물(光網)을 놓아 중생들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 "모든 중생을 포용해, 그들로 하여금 △험한 길의 공포 △뜨거운 번뇌의 공포 △어리석음의 공포 △결박의 공포 △살해의 공포 △가난함의 공포 △살지못할까 하는 공포 △소송의 공포 △대중의 공포 △죽음의 공포 △사악한 길의 공포 △모든 행로의 공포 △뜻이 같지 않은 공포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공포 △일체 악의 공포 △몸을 핍박하는 공포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근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한다.〈끝〉



그림② 선재동자의 얼굴, 그림①의 부분.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자비 에너지로 녹아나는 공포

앞서 "이러한 이유(내 존재를 유존하고자 하는 불안과 두려움)로 관심과 사랑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언급했다. 모든 생명의 이러한 공통적 속성을 간파하고 이를 구제하는 분(신성성)이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모든 사람들은 무지(내가 있다는 착각, 근본무명)와 갈애(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착)로 세상을 전전하며 윤회하고 있었다. 화엄학의 대가로 꼽히는 일본 학자 다마키 고시로(玉城康四郎)의 말을 빌려보자.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이안의 Media In Buddha 29 영화 〈서울의 봄〉



▶한줄 요약
12.12 군사 쿠데타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탐욕과 폭력의 인과에 대해 집중한다.

진정한 봄은 역사의 청산 후 온다



2주 만에 5백만 명 동원한 〈서울의 봄〉
12.12 군사 쿠데타 역사적 실화 영화화
역사적 사실보다 탐욕의 인연 고리 집중
성공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무리들은
지지 거부한 불교에 총칼로 법난 일으켜
'10.27 법난' 등 청산 못한 업보만 남아

태양계 지구별은 해가 뜨고 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맞춰 살아가는 뭇 생명들과는 좀 다른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다. 중심이 되는 태양을 기준으로 보자면 뜨고 지는 태양과 지구별 사이에는 약속된 연이 있어서, 날과 달, 계절이 바뀌고, 그 바뀌는 법칙을 헤아려 그 안에서 세상일을 새기는 일을 역사라고 하는 중생들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떤 날일시는 돌고돌아 다시 오는 해와 달과 지구 사이의 좌표에서 벗어나 그 날짜 자체만으로 고정되는 특별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 지표들은 중생들의 과보로 보자면 업을 지은 순간들일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 지표로 남게 되는 날짜들은 사람들 각자의 별업이 아니라 그 날짜를 지표로 아는 자들 모두의 공업일 것이다.

〈서울의 봄〉의 영어 제목은 '12.12: THE DAY' 다. '12월 12일, 그날' 이라고만 해도 누구나 아는 날짜이기에.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이 날짜를 살아서 지나온 사람들이 몇 천만을 헤아리는데, 이 날짜를 기점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45년이 되도록 아직 이날 지어진 '업' 의 인과 연을 제대로 들여다본 영화가 지금껏 없었다니.

이 날짜를 콕 집어 작정하고 무리를 지어 축배를 들고, 군림하고,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그 부와 권력을 대대손손 불리고 이어갈 체제를 세우느라 나라를 나라의 뿌리인 헌법과 제도를 자기들 무리를 위하도록 시대로 만들었다.

조선왕조 500년이 일제강점으로 무너진 식민지에서 독립해 헌법에 바탕을 둔 공화국이라는 제도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지 겨우 30년 남짓에 무려 다섯 번째 틀 갈이, '제 5공화국' . 첫 번째 틀이 4.19 혁명으로, 두 번째 틀이 5.16 군사 쿠데타로, 그 쿠데타 세력을 뒷받침하던 무리들이 일으킨 12.12 쿠데타까지, 매번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민주공화국답게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어떤 미래든 매번 군인들의 총과 군홧발로 짓뭉개지던 시대, '군사독재' 시대였다. 그게 군인들만의 업이었을까?

그 시대 내내 숨 죽여 살던 사람들이나 갇히고, 쫓기고, 사라지고, 맞고, 고문 당하고, 죽임 당하던 사람들 모두가 얽힌 업이 쌓이고 쌓이는 군인정치 시대는 정말 몸서리치게 긴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21세기인 지금 되돌아보면 첫 공화국에서 6.25 거쳐 12.12까지 31년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보다 더 짧은데.

이미 이 영화를 본 관객이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 5000만 국민 10명에 한 사람은 이 영화를 보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 확실하다. 지금 〈서울의 봄〉을 보는 관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겪은 적이 없는 세대들이다. 그런 세대들에게도 〈서울의 봄〉은 오락으로 보고 즐길 흥미진진한 여흥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라며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은 정치군인들이 천수를 누리며 재산을 불리는 동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고 편들어 주며 권력을 나눠 가진 사법부가 지난 시대를 죄업으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현실을 감당하며 살게 된 세대들이기에.

김성수 감독은 추론하고 비유할 것도 없이 누가 누구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들에게 굳이 전두광(황정민 역)이니 노태건(박해준 역)이니 하는 극중 이름을 따로 붙여 등장시킨다.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풀리지 않은 업이기에. 그 업의 무게는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상영관의 불이 켜지고 관객들이 나서고 있을 때, 엔딩곡 '전선을 간다' 가 흐를 때 실제 사진과 인물들, 그들이 누린 지위들을 드러내며 스크린에 비춰진다.

〈서울의 봄〉은 12.12 쿠데타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남산의 부장들〉(우민호 감독, 2019년)이나 〈그때 그 사람들〉(임상수 감독, 2005년)이 다룬 10.26까지의 역사는 감독 자신의 해석으로 따로 풀어내지 않아도 될 사건으로 두고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보안사 사령관인 전두광이 자기 무리에게 툭툭 던지는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전두광과 그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탐욕과 폭력의 인연을 드러낸다.

악인의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서사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그 악의 무리들이 올라탄 탐욕과 폭력의 바탕인 '하나회' 가 도드라지게 한다. 군대 안의 사조직인 '하나회' 는 그러니까 악업의 공업을 도모하는 인연의 올가미다.

〈서울의 봄〉에서 김성수 감독은 선과 악을 균형있게 다루려는 캐릭터 드라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태신 장군(정우성 역)에게 주어지는 개별 서사의 여지를 전두광, 노태건과 같은 이들에게는 따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떤 핑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영화적 빗장이다. 그들이 도모하는 군사반란에 개별적 이해는 필요하지 않다는, 강력한 구심점인 전두광부터 최고의 짝패인 노태건이나, 모든 상황을 말아먹는 국방장관, 휘둘리고 휩쓸리는 하나회들에게는 딱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과 행위, 그 결과 말고는 우리가 알아야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지 않았던 군인 정치의 본질을 자세하게 재현한다.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군사 작전이라는 것을, 군사 작전은 병사들을 도구 삼아 작전 대상을 타격해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차지한 권력집단에게 있다는 것을, 그 권력을 차지하는 데 법과 제도보다 욕망과 인연이 앞서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드러낸다.

대신 이 영화는 그 사건 당시 군대 안에서 군사 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군인들, 목숨을 잃거나 다쳤던 군인들을 상황 안에서 입체적으로 살려낸다. 누가 죽인 것인지, 죽기까지의 상황을 장소별,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재현해낸다. 그 이름이 실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이 죽음의 장면들은 〈서울의 봄〉이 희생된 군인들에게 보내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담은 영화적 애도일 것이다.

서울을 향해 진입을 시도하는 탱크와 장갑차,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복판으로 포신을 겨누는 야포 부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지휘관 사이에서 어쩌면 서울 한복판이 내전에 휩쓸릴 수도 있었을 일촉즉발의 상황을 스펙터클하고 긴장감 넘치게 재현해는 김성수 감독과 이모개 촬영감독의 화면은 그 일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현실을 소환해내는 시각적 충격을 자아낸다.

이날 이후 불교계도 군부에 의해 법난을 겪게 되었다. 군사반란 이듬해인 1980년 10월 27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사찰에 군인,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불교계 정화' 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 5341곳에 군 · 경찰을 투입해 법당을 짓밟고 승려 1800여 명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폭행, 거짓 진술 강요 등을 했다. '10 · 27 법난' 은 쿠데타를 주도한 신군부 세력이 불교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5공화국 정권 출범을 앞두고 벌인 폭거였다.

1980년 4월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인 종단 운영과 종단의 자체 정화를 천명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은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를 지지했던 '전한국불교회' 와 '대한불교총연합회' 를 탈퇴하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 성명을 거부했다. '한국불교의 최대 치욕 사건' 으로 불리는 '10 · 27 법난' 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반적인 해석이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불교계 비리에 대해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아무런 정화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아 자력으로는 도저히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며, 그 목적은 불교 내부의 분규 종식, 부정축재와 비리행위자 색출 및 종단 재산관리와 해외활동을 둘러싼 사기행위자와 국위손상자 색출에 있다고 발표했다.

월주 스님은 이때 계엄사 요원들에 의해 수모를 당한 끝에 총무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했고 법난 당시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였던 지선 스님은 새벽에 보안대 지하실에 끌려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취조를 받았다. 심지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온갖 폭력에 시달리게 된 승려들도 있었다.

이렇게 한국불교 사상 최대의 수치라는 법난을 일으켰던 전두환은 이후 제대로 처벌을 받는 대신 백담사에 머물며 업을 대신할 여지를 벌면서, 움켜쥔 재산과 권력을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성공했다. 천수를 누리고 죽기까지 그 일가는 그때 차지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 업에 짓눌린 손자가 대중에게 죄를 고하고 마약에 손대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까지 제대로 사법적 처벌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진정한 봄은 이 업을 청산하지 않고는 맞을 수 없으리라.

〈영화평론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당신은 저승사자 죽음앞에 당할자? 일체종교가 무슨 소용 있나요!?
당신 조상만이 염라국에 진 빚을 갚는 육경신루진통 대법회

당신은 민족조상부모없이 어디서 왔는가. 남에나라 종교와 신앙에 얼과 혼이 빠져 제 부모조상 모르고 염라국에 진 빚과 이생에 올 때 양손에 가지고 온 진 빚을 모르니 이법은 하늘 땅에 감추워진 비법이므로 자기가 부처인 화두를 모르기에 죽음의 사자 앞에 당신은 무엇으로 일체종교가 무슨 소용있나요 부처님께서도 평생해도 고행만하니 하루신선께서 고타마 불명을 주워 보리수나무 밑에가서 육경신 6년되는 루진통새벽 광명의 빛을 보는 순간 견성성불하신 법이므로 평생해서도 목탁염불하두철야정진 무슨 수행으로는 현관과 자성의 문을 보지도 찾지도 못하는 것은 염라국의 33만원진 빚과 이생에 올 때 양손에 가지고 온 진 빚을 갚지 않았기에 제석천의 신장인 육갑제왕신장들에 의하여 평생해도 찾지 못하는 마음심자인 근본 12연법인 자신의 화두를 모르기에 병마와 수마에 죽는 것이다.

※ 이제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 100년에 한번드는 사람 몸 받는 육경신루진통기도가 2023년 12월 27일 밤해시 입제 28일 밤해시에 해제하는 날이며 이날은 28일 낮 정오시에 당신에 천문과 현관을 열어 염라국과 이생에 올 때 진 빚과 업연과 각종 질병을 빚으로 업장을 소멸 몸에 귀신 잡신 빙의신 해탈못한영가 이생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리는 진광대도통법인 것이다.

※ 이 법은 만금을 주더라도 참된 스승 못난나는 비밀법이며 눈과 귀가 있는자 비인도전이니라 당신에 참스승인 것이다. 지구촌만종만교있다한들 불교 · 천주교 · 힌두교 · 이슬람교 · 알하신 · 기독교 · 무속만신 대종교 · 증산교 · 도교 · 천도교와 과학 · 의학 · 한방양방. 도사 의사 목사 신부 스님 무속만신 명예 재산자들이 죽엄을 막지못해 병들이 죽는 것은 염라국과 이생에 올 때 진 빚을 갚지 않고 윤리 탈선과 남에 나라 종교에 넋과 이빠져 개와 짐승들에 귀신놀음으로 철회맞고 죽는 천지개벽, 종교개벽, 질병개벽에 살 수 있는 법은 오직 금년육격신루진통으로 일류조상부모상 잘 모시고 건강장수거 부장자되는 천하대도법인 것이다.

상담전화 010-9292-3110 / 010-9718-4449 (총무)

천지공사육경신천문도총회 총본산 환성천용진인태일대사 합장

오음의 근본 원인은 '망상'

〈妄想〉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㊻ 망상의 원인

〈원문〉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알차고 진실하고 미묘하고 밝은 본래의 깨달음(本覺)은 원만하고 청정하여 죽고 태어나는 생사나 티끌의 때(塵垢)나 나아가 허공 따위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모두 망상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이니라. 이는 원래 본래의 깨달음이 허망하게 기세간(器世間)을 발생하게 한 것이니 연야달다가 거울 속의 머리를 오인하여 광기(狂氣)가 발동한 것과 같아서 망(妄)은 원래 원인이 없거늘 망상 속에서 인연이라 하고 자연이라 하거니 저 허공의 성품도 실로 환(幻)으로 생긴 것이므로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것은 망심(妄心)으로 계탁(計度)하는 것일 뿐이니라.

아난아, 망(妄)이 일어난 곳을 알면 망의 인연을 말할 수 있지만 망은 원래 없는 것이라 망의 인연을 말한다 해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하물며 자연이라 추측하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여래가 너희에게 오음의 근본 원인이 다 같이 망상(妄想)이라 하느니라. 너의 몸도 애초에 부모의 망상으로 인하여 태어났으니 너의 마음이 망상이 아니었으면 망상 속으로 와서 목숨을 전하지 못했으리라"

〈강해〉

오음이 다하는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고 난 부처님이 아난에게 오음의 근본 원인이 망상(妄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본래 깨달음(本覺)은 원만하고 청정하여 생사도 없고 외부 경계에서 묻혀오는 때(塵垢)도 없으며 모든 존재의 아웃라인(out-line)이라 할 수 있는 허공마저도 없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상태에서 망상이 일어나 현상의 경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라만상 두두물물(頭頭物物)의 차별 경계가 망상경계(妄想境界)라는 말이다. 망상이란 원래 허망한 생각이라는 말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집착하는 의식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 망상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망상은 전도된 생각이다. 이 망상을 여읜 것이 무분별지(無分別智)이고 반야(般若)라 한다.

그런데 이 망상이 일어나도 일어난 원인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다. 4권에 설해졌던 연야달다의 비유를 또 설했다. 실라벌성에 살던 연야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도깨비로 보고 광기(狂氣)가 발동해 미쳐서 거리로 뛰쳐나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야달다의 광기가 까닭 없이 일어난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망상의 원인이 없다고 했다. 이 원인이 없는 망상을 가지고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중생이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은 〈능엄경〉 초반부에 여러 차례 나왔다. 모두 외도의 사견을 배척하는 말로 여래장묘진여성은 인연, 자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연(因緣)도 망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원인이 없으면 인연이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것. 인연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때를 맞추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인연이 아니면서 어떤 상황이 저절로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부모에게서 몸 받아 태어나는 것도 망상 때문이라 하여 목숨이 망상과 연계되었다는 말도 묘한 말이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을 유위법이라 하며, 이 유위법은 모두 생멸현상이다. 중생의 목숨도 생멸현상이므로 망상으로 인해 목숨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망상이 아니면 목숨이 전해지지 못했으리라' 고 한 말은 중생의 생사가 망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연기설에 있어서 최초의 생멸이 일어나는 출발을 아뢰야식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뢰야연기설(阿賴耶緣起說)이다. 이 연기설 다음에 나온 것이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이다. 연기의 시작이 진여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생멸이 일어나지 않은 불생멸을 연기의 주체로 본 것이다. 불생멸과 생멸을 두고 불생멸이 생멸로 전환되는 것이 물이 있어서 파도가 일어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파도가 일어나기 이전의 물은 생멸이 아니다. 연기된 상황은 파도가 일어난 상태이지만 고요한 물에서 일어났으므로 물이 없으면 파도가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로 진여에서 연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여연기설이다. 진여연기설을 여래장연기설이라고도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공무변처해탈·무소구행의 최고 방법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㊻ 6~9번째 삼각형 그리기

여섯 번째 경로는 황정, 명문, 영대 라인이다. 명문의 쿤달리니를 영대로 올려서 가슴바탕을 철벽으로 만들고 벽관을 하는 방법이다. 수인을 짓는다. 황정과 명문, 영대를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삼각형의 내부공간을 주시하면서 쿤달리니 에너지를 영대로 올린다. 쿤달리니가 영대로 올라가면 등줄기 전체가 땀으로 젖는다.

영대로 올라온 쿤달리니 에너지로 갈비뼈를 순화한다. 그러면서 가슴바탕에 철벽을 형성시킨다. 가슴바탕에 세워진 철벽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춰본다. 이것이 5선정에서 이루어지는 벽관이다. 공무변처해탈과 무소구행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 상태에서는 일치되던 모든 현상들도 차단되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운용으로 등 쪽 상(像)이 갖추어진다.

일곱 번째 경로는 영대, 중심, 하단전 라인이다. 이 라인을 통해 반신소주천을 행한다. 5선정에서 이루어지는 반신소주천이다. 5선정의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채약을 이루고 욕정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황정, 명문, 회음 라인을 운용하면서 성취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혼의식을 제도하고 공무변처정을 성취하는 것이다. 황정, 명문, 영대 라인을 통해 성취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반신소주천을 하면서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것이다. 영대, 중심, 하단전 라인을 통해 성취한다. 수인을 짓는다. 영대에 각성을 두고 중심과 하단전을 함께 비춰본다. 영대와 중심, 하단전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주시한다. 그 상태에서 영대-중극-중심-하단전-황정-명문-영대를 연결해서 반신소주천을 행한다. 반신소주천을 하면서 드러나는 경계들을 삼각형으로 비춰본다. 호흡과 각성을 활용해서 생명에너지를 운용하고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과 몸의 업식을 제도한다. 이 경로의 운용으로 흉부, 배부, 등부, 허리부의 상(像)을 공고히 한다.

여덟 번째 라인은 하단전 명문, 영대 라인이다. 이 또한 반신소주천의 라인이다. 수인을 짓는다. 하단전, 명문, 영대를 삼각형으로 연결하고 내부 공간을 비추어본다. 그 상태에서 반신소주천을 반복한다.

아홉 번째 라인은 중극, 황정, 중심 라인이다. 이 라인을 통해 공무변처정을 행한다. 수인을 짓는다. 중극, 황정, 중심을 연결한 다음에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비추어본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시각적으로 들여다본다. 공간의 형질을 느껴보고 그 상태를 심의 바탕으로 삼는다. 심의 바탕을 주체로 해서 오장의 상태를 비추어본다. 먼저 심장을 비추어본다. 그런 다음에 비장-폐-신장-간을 차례대로 비추어본다. 오장을 비춰보면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살펴본다. 감정이 일어나면 심의 바탕으로 비춰준다. 오장의 혼의식이 제도되면서 감정의 세업이 함께 제도된다.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함께 연결한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심의 바탕과 미묘한 설레임을 함께 음미한다.

열 번째 경로는 중극, 황정, 명문 라인이다. 이 라인을 운용하면서 흉수 5번과 요수 2번 사이의 척수를 순화한다. 공무변처정을 마무리하고 식무변처정으로 나아간다. 수인을 짓는다. 중극, 황정, 명문 기점을 서로 연결한다. 황정에 각성을 두고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주시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㊻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속지 않는 일만 있다

깨달음이 없듯 가르침도 없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듣고 이해한 오온의 미사여구들이지, 가르침에는 어떤 사실적인 것을 적시하기 위해 언어도 개념도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를 배워서 언어로서 깨달음을 표현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된다.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은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 엉키게 되고, 출발점이 뒤죽박죽이게 된다. 출발점이 한결같지 않으면 언제나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대오온이 말하는 한결같은 것과 스스로가 말하는 한결같은 것에는 교집합이 없다.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다. 스스로가 말하는 한결같다는 것은 개념으로 세울 수도 없고, 모양으로 만들 수도 없어서 출발점에서 세워야 하는 대상이 없다. 오온은 대상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리고 오온은 출발하는 행위의 맹점을 놓치면서 대상으로서 출발해버린다. 출발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먼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뒤적이고 본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어디에도 그 자신이 모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면서 걷기만 한다.

출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표시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출발을 미루어야 한다. 출발선에 있다면, 발을 떼려는 그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섣부르게 출발 하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되어버린다. 짧은 기간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병은 아주 깊어진다. 물론 당사자는 병이 깊어진 줄도 모른다. 보이는 몸이야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되니 차차 밝아질 것이라 굳게 믿는 마음 때문에 병은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아주 큰 병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수술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전체를 수술해야 한다.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수술 받는 사람은 더더욱 힘들다. 따라서 출발하려는 행위가 가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다.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도 좋다. 출발하려는 이유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였다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앞뒤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가르침이 있다. 물질은 내가 될 수 없고, 느낌, 지각, 의도, 의식도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양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워진다. 양변은 어느 쪽도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다. 어쩔 수 없는 추측들이 출발하게 한 것이지, 옳고 그름이 있어 출발한 것이 아니다. 찾는 답은 없다. 그러므로 물음이 있을 수 없다. 움직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아져야 한다. 우리가 속는 것은 움직여서 속은 것이지, 속는 것이 있어 속은 것이 아니다. 움직임 없는 자리를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단 속는 일은 없다. 속는 일이 없으면 잘 되는 것도 없고, 잘되지 않는 것도 없다. 오온은 판단을 유도하여 어떻게든 속이게 한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이게 만든다. 그 짧은 움직임에서 양쪽을 간파하여야 한다. 긴 시간을 두고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짧아 인식하기도 어렵다. 찰나를 놓치면 승부는 나도 모르게 끝난다. 승부가 끝나고 나면 항상 뒷북을 친다. 승자는 웃겠지만 패자는 씁쓸한 맛을 느낀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오온이 노리는 꼼수다. 수행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속지 않는 일만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여야 한다. 스스로는 하는 일이 없다. 오온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오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온이 시비를 거는 일이지, 스스로가 시비를 거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는 오온을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기고 지는 데는 관심도 없다. 오온이 성숙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앎은 어떤 선택이 아니다. 의식이 만들어 놓은 '나' 라는 허상은 실재를 선택하지 못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울산 정토사

울산 정토사, 정토세상 가꾸기 터전으로

울산 정토사 덕진 스님



덕진 스님은 남다른 포교원력을 지닌 선지식이다. 스님은 지역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 공간을 구성하여 전법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1988년 울산 정토사 창건 후
지역사회 거점 역할도 맡아
휴식제공 안식처 역할 자임
마음치유로 지역민 보듬어

40년 어린이 청소년 포교 함께
베트남 불자 한국 정착 돕고
우리말 불교의식 보급 앞장서



정토사서 운영하는 태화합창단 공연 모습.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스님)는 한국 산업화의 상징과 같은 도시 울산에서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위안을 주는 곳이다. 평온함과 자기 성찰의 명소로 아름다운 풍경 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 신행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토사는 울산 도심 남산자락에 있어 교통이 편리해 일반 시민들도 즐겨 찾는 도심 전법 도량이다. 정토사에 들어서면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감실 팔불상을 만날 수 있다. 실내가 아닌 야외 언덕에 조성한 감실 팔불상은 채색된 불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과 동·남·서·북·중의 오방불을 봉안했다.

이곳 정토사는 불교대학, 각종 전시회와 문화교실,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포교와 시민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골 봉안당 '극락원'도 운영하고 있다. 울산의 숨겨진 보석과 같은 정토사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여행과 특별한 매력으로 현대사회의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토사 경내에 들어서면 한국 전통 건축미와 자연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이한다. 본당인 대웅전은 한국의 전통건축방식으로 지어졌고 안팎의 공간에 불교의 가르침을 묘사한 불화로 장식되어 있다. 경내 마당에는 미륵불의 화신으로 불리는 포대화상과 관세음보살 입상, 삼층석탑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최근 정토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살아있는 전법 도량의 역할도 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이며, 명상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평화로운 휴양지 역할을 하며 고요한 주변 환경은 영성과 자연의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교전진기지 거듭나는 정토사

이러한 정토사 중흥에는 지난 4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해 군인, 병원 환자, 다문화 가족 등 각계각층 간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부처님 법 알리는 데 앞장서 온 덕진 스님이 있다. 덕진 스님은 여러 인연과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1988년 정토사를 창건했다. 전방위 포교의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원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포교를 하거나 불사를 하려면 정당하고 뚜렷한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포교와 정토사 불사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덕진 스님은 은사이신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1980년 부산 금화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이때부터 부산 국군병원 포교를 시작으로 전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스님은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관음신앙과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의 병 치유 등에 대해 법문을 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많은 환자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40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

이 무렵부터 스님은 어린이 포교 활동도 시작하여 부산 청룡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법하였고, 그 것이 계기가 돼 현재까지 어린이 포교 활동을 40여 년간 이어 오고 있다.

1988년 정토사를 창건한 후 지속하고 있는 정토사 어린이 법회에는 매주 150여 어린이가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금은 인원이 감소했지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불교학교에는 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학령인구가 감소 속에서 놀라운 결과다.

덕진 스님은 어린이법회 침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불교가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 고 강조한다.

"어린이들의 수가 많이 감소했고 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불교가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어린이 법회가 어려워진 듯합니다."

스님은 사찰이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함께 놀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이 되어야 사찰을 찾는다는 지론이다. 이러한 스님의 전법 방향은 어른들을 위한 불교대학 개설에서도 드러난다. 덕진 스님은 울산 정토사 창건 후 가장 먼저 정토불교대학을 시작했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를 통해 사회봉사와 함께 지역민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기 위함이었다. 교육과 전법, 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정토사 불교대학은 덕진 스님이 울산불교교육대학 창립 시 사무국장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정토사는 다른 전각보다 불교대학을 위한 공간을 우선 마련했고 이는 수강생 증가로 이어졌다. 1997년 처음 문을 연 정토사 불교대학은 주간반 170명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999년 지역에서는 처음 개설한 야간반은 200여 명이 수강하기도 했다. 불교를 공부하려는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야 4개 반을 운영하며 연간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45기 주야 2개 반과 3개월 과정의 기초 야간반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180여 명의 조계종 포교사를 배출했고 졸업생들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 수행하며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배출한 졸업생은 3개월 단기과정을 포함해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불교대학원 경전반 과정을 신설해 현재 17기 주간반은 '화엄경 현수품' 을, 야간반은 '맛지마 니까야' 를 공부하고 있다.

정토사 불교대학은 불교 공부 외에도 태화합창단(주간 여성), 어울림 합창단(야간 혼성), 청소년 가람합창단, 민화반, 명상반, 싱잉볼, 오카리나반 등을 운영하며 불교대학 수강생들의 문화 수요도 충족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전법활동, 베트남 불자 정착 도움

덕진 스님은 울산 지역사회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을 역임한 덕진 스님은 복지관과 재가노인센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해 오고 있으며, 어르신 무료급식소는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봉사단체 '함께 하는 사람들' 공동대표, 울산처용문화제 운영위원, 울산사랑운동회 이사 등으로 위촉돼 활동했으며 현재도 울산시정책자문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행을 하고 있다.

덕진 스님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불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베트남 불자들의 한국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 베트남 불자들이 베트남 스님 초청 법회를 위해 정토사를 방문해 협조 요청을 했을 때도 흔쾌히 법당 사용을 허락했다.

당시 베트남 불자들이 스님을 부모님 모시듯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신심나게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덕진 스님의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10월 국내 두 번째 베트남 사찰인 해원사가 양산에 개원하기도 했다.

덕진 스님은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즐기며 향수를 달래는 모습과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1990년부터 우리말 불교의식 보급

정토사는 창건 초기인 1990년대부터 우리말로 불교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어려운 한문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의식집을 만들었다. 1992년 〈문학세계〉에 정식 등단하고 4권의 시집을 낸 스님은 시대에 맞는 적절한 포교 수단으로 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동해 갯마을' 과 같은 찬불가와 찬불동요 음반을 직접 제작했다.

이런 활동으로 2022년에는 덕진 스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창작 찬불가 '언제나 기쁨' 과 '우리는 좋은 인연' 두 곡이 대한민국 찬불가요대상 작사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불자들에게 찬불가를 통해 새로운 신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그림이 주는 감동과 포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색칠하기 책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 사경 사불 시리즈 전 6권을 출판해 미술치료와 그림공부를 겸한 불교 포교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스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널리 알아서 이해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책도 집필, 보급했다. 불교 천자문, 우리말 의식집과 행원참법, 그리고 산문집 '두번째 화살은 맞지마라' 등의 책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쓴 책들이다. 스님은 20종 26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출판했다. 지금까지 낸 책들을 대중들에게 배포한 것이 불교의식집을 포함해 약 6만 권에 이른다. 이는 오로지 부처님 법 전하기 위한 원력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40년 넘게 부처님 전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덕진 스님은 부루나존자 그 자체다.



납골당 극락원과 불교대학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울산 정토사 전경.



2023년 3월 스님이 정토사 신도들과 문수로일대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덕진 스님 첫번째 선서화전 '부처님과 내마음 그리기' 를 둘러보는 참석 스님들의 모습.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463호 | 18 | 전면광고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진실로 여래를 볼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법사님 일반인 무속인 인연맺습니다.
- 사찰, 굿당 등 활용 가능 문의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가액 : 4억 5천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삼량리 155(자비정사)
- 대지 : 약 1,200평
- 법당 30평, 삼신각 3평, 요사채 30평(방3개, 화장실2개)
- 난방,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 7억 5천

010-8545-024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교방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10만원

밀양으로 확장 관련 현 가람 임대 놓습니다. 암 말기 환자 치료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010-3132-9666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 다가구주택 6가구 포함. 3층 건물
- 법 당 : 부처님 삼존불
- 매매가 : 3억8천만원

몸만 오셔도 됩니다.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
- 빈 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N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약 50여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30평 (종무소1층)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스님 건강상 때문에 모든집기 다 드립니다.

010-3190-8113

사 찰 안 내

- 위치 : 통영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9456-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1억 1천만원

010-2807-0509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박재완의 포토에세이

한 생각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로 말미암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저문다고 말하는 시간이 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과
설명할 수 없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을 수 있는 것들을
조용히 두 손에 묻을까

마음은 까닭도 없이 어딘가에 가닿고
어딘지도 모를 곳에 가있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이 한 생각은
언제 적 생에서 온 것인지…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㉑ 구절초꽃차

생리불순, 불임증 등 여성질환에 '탁월'

구절초(九折草)는 초국화과 산국속에 속한 숙근성 여러해살이풀로 키는 50cm로 곧게 자란다. 꽃은 9~10월에 피며, 꽃의 색은 흰색 또는 연분홍색이다. 꽃말은 '감사'이다. 밤에 꽃잎에 맺힌 찬 이슬에 아침에 햇살이 비추면 방울방울 맺힌 이슬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하여, '구절초꽃의 눈물'이란 말도 있다.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산야에서 자생한다. 구절초의 다른 이름은 서흥 구절초, 넓은잎 구절초, 낙동 구절초, 선모초(仙母草)이고, 생약명은 구절초(九折草), 구절초(句節草)이다.

구절초의 유래는 단오에는 줄기가 다섯 마디인데, 9월 9일 중양절기에는 아홉 마디가 되어 구절초라 하고, 이때에 채취한 것이 제일 약효가 좋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 구절초를 먹고 아이를 잉태하였다고 하여, 선모초(仙母草)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용부위는 줄기, 잎, 꽃 등 전초이며, 약용한다.

성분과 약성

성분은 리나린(linarin), 카페인산(caffeic acid), 3,5-디카페오일 퀴논산(3,5-dicaffeoyl quinic), 4,5-0-디카페오일 퀴논산(4,5-0-dicaffeoylquinic acid) 등이 있다.

약성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쓰다. 생리불순, 생리통, 대하, 불임증 등 여성의 질병을 다스린다. 복부의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냉한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불량을 치료한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마음, 기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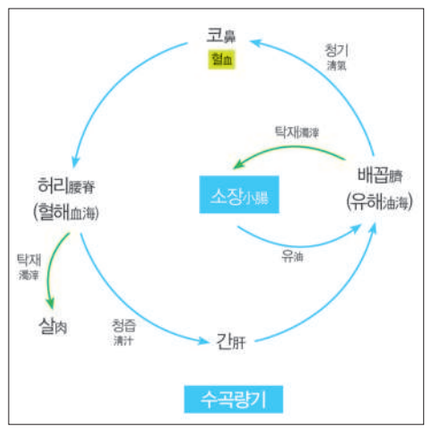
구절초꽃은 비장(脾臟)에 좋은 소음인의 꽃차이다. 구절초꽃은 여성의 생리불순, 생리통, 대하, 불임증을 다스리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간(肝)과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가 되고, 혈해의 맑은 즙을 간(肝)이 빨아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익한다. 구절초는 혈해의 맑은 즙을 잘 빨아들여서 간의 원기를 보하고, 배꼽에 있는 유해로 기운을 잘 넘겨주는 것이다.(그림 참조)

특히 〈동의수세보원〉에서는 "태양인 여자가 체형은 크고 실하지만 간(肝)이 작고 좁아서 자궁(子宮)이 부족하여 출산이 힘들다"고 하여, 임신과 출산은 간이 주관함을 밝히고 있다.

구절초꽃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이것도 수곡량기에서 혈해(血海)와 관계된다. 구절초는 코에서 허리의 혈해를 충만하게 하여 간(肝)을 보익하고 혈(血)을 잘 응결되게 한다.(그림 참조)

또 구절초꽃은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냉한 위를 따뜻하게 하는데, 이는 수곡열기의 고해(膏海)와 관계된다. 구절초는 양 젖가슴에 있는 고해의 탁재(濁滓)가 위를 보익하는 것이다.





제다와 음용

①구절초꽃은 갓 피어난 꽃을 9~10월에 채취한다. ②제다는 덖음 방법과 찌는 방법이 있다. ③저온에서 꽃을 덖음과 식힘을 반복한다. ④고온에서 맛내기와 가향 덖음하고 건조하여 완성한다.

구절초꽃차 4~5송이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린다. 구절초차에 대추차를 블렌딩한다.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구절초차 블렌딩은 여성들의 냉증을 없애주고, 생리불순, 생리통, 대하, 불임증에 도움을 준다. 구절초꽃차 4송이, 대추차 0.8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구절초꽃차는 몸이 허약한 사람은 과다 음용하지 않는다.

사상인별 음용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구절초꽃차의 건향은 전반적으로 국화향이 나고, 약간 달큰한 향과 짭조름한 향이 났다. 우림한 차에서는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넘기면서 목 부위가 마르고, 혀끝이 따가웠다. 잠시 후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해진다. 입안에서는 쌉싸름한 맛이 감돌고 떫은맛과 회감이 있다. 국화차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몸의 반응을 느끼게 되었다.

다른 태음인이 마셨을 때, 구절초꽃차의 건향은 진하고, 우림한 차에 색은 연하다. 한 모금 넘겼을 때, 진하고 독한 맛이 났다. 입 속에서는 박하 맛처럼 느껴지는 순간 혀가 따끔따끔했다. 연속으로 따끔따끔한 느낌은 한여름에 쐐기벌레에 물린 느낌이다. 왼쪽 관자노리에 편두통이 시작되고, 뒷목이 뭇직해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졌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구절초꽃차 건향은 국화꽃 향이 진하게 나며 쌉싸름한 향도 느껴졌다. 우림한 꽃차에서는 입안이 약하게 화한 느낌이 오래가며, 목 넘김이 부드러웠다. 마신 후 뒷맛은 살짝 텁텁함이 남았고, 약한 한약 맛이 났다. 기운이 가벼워지면서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다른 소음인은 구절차꽃차를 마시면서 확연히 다른 경험을 하였다. 6~7시간의 장거리 여행에서 커피를 대신해서 마셨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오게 되었다. 평소 느낌이 둔한 편이고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구절초꽃차는 다르게 다가왔다. 구절초꽃차는 소음인의 시음 반응은 정말 좋지만, 태음인이나 열이 많은 소양인은 조심해야할 것 같다.

'임병학의 꽃차 이야기' 마지막 회를 맞아, 2023년 한 해 동안 함께해준 독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꽃차 시음에 참여해주신 원광대 마음학연구회 연구원들과 후원해주신 김형기 회장님의 정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끝〉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일일시호일

혈액암 치료비·약값 눈덩이에
생계도 막막

어머니 심장병 해결하고자 한국 온 미얀마 이주민 테민앙씨
림프종 혈액암에 1년 넘게 생사기로…수술비만 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 100문 100답 ❼ 상황별 명상의 실천법 下

▶ 한줄 요약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로 인해, 혹은 어떤 일로 인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리게 되며 그럴 때 분노의 감정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불편한 감정 알아차리기만 해도 치유 효과



명상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정적 명상을 할 때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바닥에 앉아서 하는 경우 결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 하게 되면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저려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할 때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이게 되면 명상 대상에 집중된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상 중에 다리가 불편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20분~30분 정도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다리가 저린 후 조금 지나면 특정부위에 통증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조금의 가려움이나 통증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바로 긁거나 움직여서 가려움이나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인 습관에 젖어 있으므로 명상 도중 자세를 자기도 모르게 바꾸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은 처음에 이를 참으라고 지시를 받음에도 불편하다고 일단 느껴지면 곧 부정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를테면 '이러다 다리가 마비되거나 쥐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생각이 확산되어 바로 자세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참아야겠지만 명상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에 가능한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자세를 바꾸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초보자의 경우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것을 참으면서 명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통증에 대한 무조건적 기피입니다만 통증을 참으며 명상하는 것은 힘든 고행이 아니며 통증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조금의 통증도 못견뎌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일어나는 곳에 마음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증의 구체적인 감각을 관찰 대상으로 하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일단 통증에 대한 불편한 고비를 넘기면 좀 더 자유롭게 명상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통증을 싫어하고 없애려는 마음가짐보다는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릎이나 다리의 저림이나 통증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자세를 바꾸지 말고 그 통증에 마음을 집중해봅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 알아차림을 가지고 계속 관찰합니다. 통증이 일어난 후 대부분 이러다 몸에 탈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면 이것 또한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럼에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세를 바꿀 때에는 아주 천천히 통증 부위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자세를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소 장시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불편하거나, 명상을 진행하면서 도저히 다리의 통증 때문에 오래 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명상하는 경우에도 신체의 다른 부분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때 역시 자세를 무조건 바꾸지 말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바꾸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 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움직이는 것은 새나 비행기처럼 공기에 대한 상대적 움직임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새는 날개를 상하로 움직여서 날고 비행기의 날개는 공기의 양력을 이용해서 납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것은 자신의 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중부양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력에 반하는 어떤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명상상태에 있으며 이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반중력 상태를 만들어 공중으로 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깊은 명상 중에 일어난다고 착각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공중에 떠있었다고 하는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공중부양이 가능하다면 명상 중에 신체에서 어떤 반중력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온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상 중에는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 물질적 경험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적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 **다리 저리면 그 느낌에 집중하고**
> **명상 중 되도록 움직이지 않아야**
> **의자에 앉는 것도 한 가지 방법**
> **기분 나쁜 기억 회피하기보다는**
> **차분한 마음에 마주하는 연습을**

깊은 명상 중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공중에 떴다고 느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이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명상에 집중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공중에 떠 있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이런 환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명상상태에서 귀의 반고리관의 기능이 떨어져 무중력 상태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고리관은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3개의 고리 모양의 관이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나 속도가 변화할 때 운동상태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관이 명상상태에서 자신의 몸이 떠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질의 특성 중 가벼움과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도중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낄 때 공중부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에는 눈을 뜨고 보거나, 손으로 바닥을 짚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떠오르는 느낌이 들면 놀라거나 반대로 즐기는 대신, 이를 알아채고 자신의 현재 명상주제인 대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곧 사라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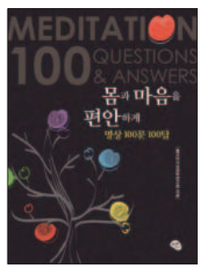
명상할 때 불편한 기억이 떠오르면?

내가 원하는 대상에 마음이 머물지 못하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방황을 시작합니다. 불편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마음이 대상에 온전하게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명상을 하다 보면 민감해진 기억작용으로 인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나 감정은 외면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내 마음속에 밀쳐두었던 싫은 감정이나 사람이 더욱 또렷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은 마치 폭우로 인해 흙탕물이 된 개울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가만히 놓아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불순물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바가지 속에 들어 있는 잔돌이나 지푸라기, 나뭇잎 등이 환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거나 기분 나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에 속합니다. 불교에서 분노는 탐·진·치 3독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독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주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 또한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치게 됩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의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호흡이 거칠어진다거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한다든가, 혹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손을 들어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마음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로 인해, 혹은 어떤 일로 인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즉각 알아차리게 되며 그럴 때 분노의 감정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치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명상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 중에 미운 사람이나 싫은 일, 기분 나쁜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 더 성숙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로지 알아차림만이 적절한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 중에 평소 미워하는 사람이나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 떠오르면 우선 무척 힘들어집니다. 괜히 명상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감정을 표출해 버림으로써, 내부적으로 그 싫어하거나 미운 감정들을 경험하여 해소하는 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싫은 감정일수록 표출하지 않고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꾸준한 명상을 통하여 이런 감정들에 맞닥뜨리고 그러한 감정들과 화해하는 연습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를 순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이 너무 힘들면 마음을 두는 명상의 대상을 바꾸어보거나 싶은 명상을 잠시 쉬고 빠르게 걷기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끝〉



〈공저 :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외 12명 / 올리브 그린 펴냄〉





대행 스님

자신을 아신다면 전체의 근원이 그 자신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십 년, 이십 년, 근 삼십 년을 두고 여러분을 접해 왔으나 여러분을 가만히 볼 때마다 참, 내 몸과 같이 아프고, 그 아픈 말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의학적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나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리가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도리가 많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의학적으로 발전이 돼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화풍으로써 형성돼서 미생물이 생겨서 그 모든 미생물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하여금 수없이 모습을 바꾸면서 나투어서 화했습니다.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이 될 때까지 얼마나 그 쓰라림을 겪어 왔나 하는 거, 그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싸워 왔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짐승들과 생물, 무정물 또는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거쳐 왔다는 그런 이치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쳐 와서 지금 인간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연구를 하고 본다면 예전부터 과학자가 생기고 철학자가 생기고 수많은 공업자가 생기고, 말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못할 때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잘할 때도 있고, 발전을 능숙하게 해 나갈 때도 있었고 또 못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끊긴 때도 있었고 성장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간이 돼서 이렇게 아무리 물질적 발전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심성의 그 능력은 앞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심성에 의해서만이 연구가 됐던 거고 일체 만법의 근원이 됐던 거지, 심성을 빼놓고서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이름은 많겠지만 심성으로 인해서 일체가 다 발전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목표를 하나로 해서 심성 과학이라고 하든가 심성 의학이라고 하든가, 이 심성을 붙이지 않으면 의학과 과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無)의 활용으로서 발전을 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 자연 법계의 근원이 우리 심성 근원에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는 입증해야 할 겁니다. 과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으니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입증입니다. 이것이 심성 과학이라고 해도, 생활이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디에서 입증을 꼭 해야 한다지만 우리는 항상 입증을 해 가면서도 그걸 입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아닙니까? 한 발 떼 놓는 대로, 생각 하나 하는 대로 겉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그것이 입증하지 않는 겁니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린 증명해 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지켜봐 가면서 입증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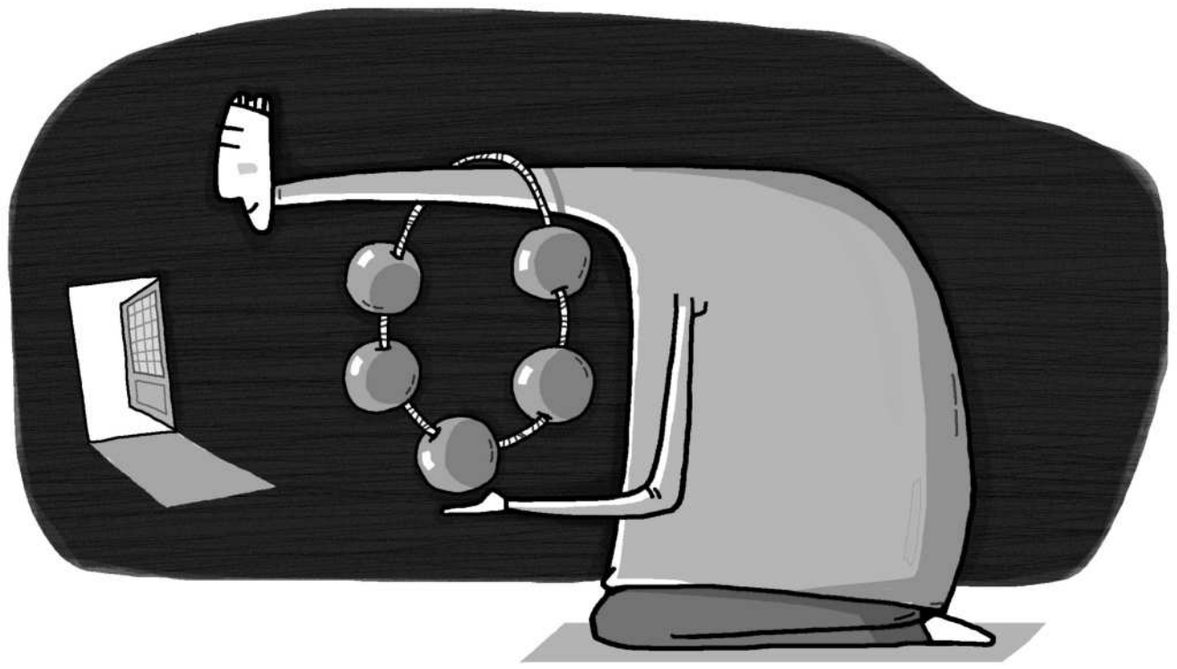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의학자들도 그렇고 그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니 뭐, 여러 가지 물질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냈습니다. 병 증세도 그렇고 어떠한 세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건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같은지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삶이 보람되기보다는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폭이 됩니다. 무슨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든가, 무슨 또 보람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를 아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럴 때 무슨 의욕이 나서 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허무한 마음만 앞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이 몸이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본다면 아주 실질적이고도 실천적이고 생동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계화를 연구해서 현미경이니 뭐, 컴퓨터니 탐지기니 하는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건 오신통이라고 왜, 피대가 돌면 베어링이라고 구슬 같은 게 안에서 돌죠? 그런 구슬 알처럼 생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걸림 없이 구릅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천체망원경으로 하나는 구슬을 만듭시다. 탐지기로 만듭시다. 컴퓨터로 만들고 또는 영사기로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불가에서는 이름하느냐 하면, 천체통신기 말입니다, 무전통신기 그거하고, 구슬을 만들려면 다섯 가지가 되고 책정기까지 여섯 가지가 되겠죠. 책정기는 즉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밖엔 없습니다, 시쳇말로.

옛날에는 타심통, 숙명통 또 천이통, 신족통,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오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계 아닌 기계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그 구슬같이, 베어링이 기계 속에서 돌아가는데, 피대가 돌아가야 그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맥 동맥을 피대 줄로 비유한다면 똑같은 얘깁니다.

그 자연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법칙에 의해서 한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놓을 수 없는 베어링 다섯 개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것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었고, 의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 심성 과학이라는 건 무에서 유로 나오기까지 이 인간이 입증을 안 하면 할 데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생각한대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물질 하나를 갖다가 (손수건을 들어 보이시며) 연구해서 발명을 했다면, 만약에 개구리 알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알은 셀 수 있는 입증을 했는데, 이 무의 심성 과학은 입증을 할 수 없으리만큼 수효가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무한개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러나 참 묘한 법이, 불가사의한 법이라고 하지만 묘한 법이면서도 현실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체를 다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서, 자기가 깨달았다기보다는,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한생각에 이 우주 공간에 꽉 차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묘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스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는데 그런 일이 천차만별로 말도 못 했습니다,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두고. 그랬으니 겪어 나온 그 얘기를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남들은 목탁이나 치고 밥이나 내려 먹으면 그뿐으로 스님네 할 일 다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노릇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 중에도 중노릇하기가 어렵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의학자들도 한 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살림을 해 가면서 이 공부 하시라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얘기한 거 말입니다, 그 오신통을 스스로 굴리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굴리고 있는 무의 법에 의해서 유의 법과 둘이 아닌 까닭이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걸 응용 못 한대서야 될 노릇입니까? 그것도 과학인데요.

어떠한 병자가 척추를 못 쓰고 움죽거리질 못하는데 병원에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십 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렇다면 무의 진리에서 의학도 한 부분! 한 부분인데 그 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보람을 잃는 겁니다, 빛을 잃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부처님 법도 바로 연구입니다. 내가 나를 계발하는 연구! 내가 나를 탄생하게 해

☞ 22면으로 계속



한생각으로 벌집처럼 일어나는 세균을 내 한마음에 집어넣어서 녹일 수 있다

☞ 21면에서 계속

서 계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능력을 가져오는 거지 누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때 그 사람, 애는 일곱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됐을 때는 참 그건 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없으니까 허구헌날 울었습니다. 이건 보기가 지겨우리만큼, 진저리가 나도록 말입니다. 그 반면에 나를 그 사람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건 왜냐? 진저리가 나다 못해 나중에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불쌍하더니 그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어휴, 중노릇하기 어렵구나.' 피해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만큼 피하고 싶더니 '아, 이건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다섯 개가 지금 구르고 있느니만큼…. 지금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본다, 크게 본다, 현미경으로 그렇게 봐도 그것은 기계를 갖다 놓고 봐야만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랬습니다. '아하, 현미경도 바로 내 눈에 있는 것을, 내 마음의 눈에 있는 것을 그랬구나.' 하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 척추 골수에 노란 액체가 배부돼야 하고, 진득진득한 맑은 물도 돼야 하고, 역시 벌건 물도 조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깐 겉으로 발라 주는 게 있고 안으로 발라 주는 게 있고 조달하는 게 있고, 순환 공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이렇게 싸고 있는 보호망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는 그 세포의 모든 걸 지키고 있는 걸 보호망이라고 한다면, 이 거죽의 세포가 아니라 안 세포입니다. 그렇게 망이 돼 있더라는 이야깁니다.

내가 만약에 파리를 건지려면 파리 속으로 들어가야 파리를 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그 벌레가 돼야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네? 세 가지 종류의 벌레가 돼야 내가 그것을 운영해 나가죠. 그래서 그 액체를 발라 주고 피를 공급하면서, 또는 안팎에다 발라 주면서 보호망을 튼튼하게 해 나가니까, 그 보호망에도 베어링처럼 그렇게 전부 슬기롭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거기에서 생각을 하고 얻은 것이, 그 사람 사니 좋고 나 공부했으니 좋고…, 그 모두를 둘로 보지 않아야죠. 내 몸을 끌고 다닌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큰 덩어리의 사람이 저까짓 것 미생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미생물로 인해서, 그 세균으로 인해서 벌레가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하는 거를 마음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지금 탈을 쓰고 갑니다. 인간 탈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건 탈바가집니다, 어디까지나. 조그만 탈바가지고 큰 탈바가지죠.

그래서 옛날부터 난 이런 말도 잘했습니다. "자신을 아십시오. 자신을 아신다면 전체의 근원이 그 자신의 근원이 될 겁니다." 천지의 근원도 바로 마음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 우주의 근원도 바로 마음의 근원이 될 것이니 그 어찌 보람 있지 않겠느냐 하구요. 그럼으로써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는데도 유유히 끌고 다닐 거라고요.

물론 죽을 것도 영 죽지 않게 살릴 수 있겠느냐 한다면 그건 아니 됩니다. 탈을 썼다가 버릴 때가 오면 버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받아 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못 하고 그냥 애를 쓰면서 고통을 받는 거는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세상에 한생각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벌집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세균이 벌집처럼 일어나는 걸 내 한마음에 집어넣어서 녹일 수도 있고, 그 한마음에서 벌집처럼 일어나게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다섯 가지의 오신통이라고 할까요? 그걸 수레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본을 아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거기에서 그 수레바퀴는 어디에든 쓸모가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말입니다, 병균을 집어내기는 했는데 이 병균이 어디서 온 걸 모릅니다. 그러면 요거 한 가질 연구해 냈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약을 만든다 하면 다른 생명이 죽습니다. 그런다면 이 연구는 하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하나 하는 데 인체의 다른 생명들에게, 세포에나 모든 것에 지장이 없이 하나만 죽이는 연구에 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더하고 덜함이 없으면서도 내 주인공의 한마음의 베어링은 스스로 굴러가면서 그냥 여지없이, 무슨 부작용이 없이 말입니다. 파워를 일으킬래도 일으킬 수 있고, 일으켜서 그쪽 부분을 좋게 하려면 좋게 하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원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부처님 법이라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에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하는 말인데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못난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이해를 잘해서 연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학식이 많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고 요즘은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학식이 많았더라면, 거기에 변동이 얼마나 가소롭게 들어갔을까? 또는 요동을 떨고 잘났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안다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 적엔 애가 돼서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애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어른이 됐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애가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알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다면 모든 게, 고개 바짝 들고 '나' 라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면, 모두가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물리가 그대로 천차만별로 다 터지지 않을까? 이걸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계절로 나누었고, 대의적으로 넷으로 나눈 게, 태로 나고 알로 나고, 화해서 나고, 질척질척한 데서 난다. 이게 넷으로 나누었지마는 우리가 태로 나는 거, 물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우리 지금 인간으로 사는 동물이나 작든 크든 태로 나는 거는 사람 될 수 있는 여건을 100%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태로 나지만 어떤 건 알에서 나옵니다. 알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냥 질척질척한 데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화해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열두 가지로 변화가 옵니다. 그것도 화함입니다. 순간 순간 화해서 나는 것도 있으니, 이 공중에 화해서 생기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 어떠한 병이 들었다 한다면 파워를 일으키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도 있지마는 안에서 파워를 일으켜서 생기는 세균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비가 됩니다. 세포에서 순환이 되지 않는가 하면 속 세포에서 순환이 안 되고, 이 껍데기가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될 수 있는 그런 갈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의 모든 게 돌아가는 이 속 껍데기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두가 생명체예요, 모두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구멍이 뚫렸는데 힘이 없다면, 여기서 내밀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라면 내밀기 이전에 하나로 그냥 녹여라 이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심성이라는 거는, 생명이라는 그 존재가 바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으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모든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균들도 따라서 그렇게 발휘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둘로 보지 않는다면, 바로 둘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내가 된다면 순간 똫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도 멀고, 그 마음 모르면 가까워도 멀고 마음을 알면 멀어도 아주 가깝다 이 소립니다. 이거를 말해서 초월했다고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할 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잘하시면 아주 체계 있는 소리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게 하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된다면, 순간 그리로, 즉 말하자면 의사가 돼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도리가 거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픈 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더 잘 압니다. 딴 의사보다도, 박사가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픈 건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자기가 자기 몸을 치료하는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이 한 부분이라고 그러지마는 이것이 전체 삶의 보람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어떤 때는 말하다가도 이렇게 잊어버립니다마는 이 세균이 못 쓸 건 쓸 거에다가 하나로 뭉쳐 버리고 쓸 건 남겨 놓고, 못 쓸 건 그렇게 하는 동시에 물로 흘려 버리면 그냥 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음공부 한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의 한생각의 눈이라면 그것이 빛과 같은, 광선이나 같은 겁니다. 빛의 에너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쏜살같이, 한생각에 그냥 즉시에 녹아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은 물론 내놓을 수도 없고 체도 없습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우주간 법계에서 안다면…. 이것을 못 믿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딴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데…."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 이 사람아. 네가 알고 있는데 하나도 몰라? 네가 알고 있으면 전체가 아는 거지, 이 사람아, 네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모른다고 해?" 하더랍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의학적으로 지금 생태의 모든 것을 파악해서 고친다고 하더라도 30%밖에는 확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70%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보이는 걸 아무리 집어내도 자꾸 새 삼스럽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얼마나 폐병 환자가 그냥 죽어 갔습니까? 지금도 폐병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저 초기에 고치는 것은 결국은 더 심하지 않게끔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그 약일 뿐이죠.

여러분의 정신에 달렸습니다. 모든 병 증세는 어디에다가 맡기지 말고, 병뿐만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해 나가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공부한다'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겠지만요, 학술적인 공부나 이론적인 공부, 철학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에 붙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아시면, 자신을 안다면 바로 상대에도, 상대성을 나의 그 원형에다가 바로 넣어서 하나로 굴리기 때문에 이것은 걸림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내 몸은 여기 두고도 내 몸이 수없이 나투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써 내가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그것을 자꾸 체험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아마 마음일 겁니다.

고개 바짝 들고 '나' 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안다면 모두가 풍부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물리가 그대로 천차만별로 터지지 않을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12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오늘을 산다는 것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연초 갑상선암 판정 받고 수술대 올라
몸을 회복하며 살아있음에 감사드렸다
지금도 비구 법장으로 있음에 감사해

김주일 국장, 김성철 교수 등 지인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아…황망할 따름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 주련 글귀
사는 게 수행이고, 이를 아는 게 깨달음
오늘 하루, 어떤 날보다 소중함 알아야

시간은 또다시 정처 없이 흘러 어느덧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언제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간의 흐름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올해는 필자에게 있어 여러 의미로 기억에 남은 한 해였다. 연초 갑작스런 갑상선암 판정으로 인해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깊은 사유와 고민을 갖는 시기였다. 20대에 출가해 30대에 유학을 하고 40대에 승가대학 교수사에 돼 게으르지 않고 신심 있게 지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아니겠지라는 망상은 '암'이라는 한 단어에 여실히 무너져 내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갖게 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오른 수술대에서 두려움 가득히 눈을 감았고 다시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찰나의 시간이 바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됐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함과 법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인연들의 소중함을 간절히 느낀다.

올해는 이러한 개인적 일과 함께 안타깝게도 주변의 인연들이 갑작스레 생을 다하는 슬픈 일들이 많았다. 누구 한 명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만나거나 통화하며 오히려 나의 안부를 묻던 분들이 헤어짐의 인사조차 나눌 겨를 없이 떠나가셨다. 5월쯤 승가의 선배이시며 항상 올곧은 수행을 보여주셨던 스님께서 갑작스레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 현대불교신문의 김주일 국장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며칠 전 학회에서 인사를 나누었던 분의 슬픈 소식이었기에 다시금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이처럼 황망하게 떠나가실 수 있는지 두 번째 다가온 슬픈 소식은 '삶'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가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나는 그동안 나의 암수술이 잘돼 다행이라는 생각에 빠져 일상을 아무 일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이처럼 가까운 인연들의 소식에 그 가벼운 생각이 너무나 창피했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이후로도 승가와 재가의 인연된 두 분이 더 세상을 떠나셨고, 며칠 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경주 동국대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던 김성철 교수님께서도 갑작스레 슬픈 소식을 전해오셨다. 작년에 학교를 은퇴하시고도 쉴 틈 없이 연구와 지도를 해주시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셨다는 소식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이다.

수술 이후 생각했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 자신과 인연된 분들에 의해 끊임없이 되뇌게 됐다. 출가자와 재가자 그 누구도 삶의 마지막을 피해갈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간절하지만 그 사라짐 앞에서는 어떤 힘조차 쓸 수 없다. 그렇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안에서 인연된 이들과 살아있음을 공존하며 함께 해야 한다. 어쩌면 수술대 앞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어서 사라진다는 것보다 지금을 살 수 없고 인연된 이들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을지 모른다.

해인사 법보전에는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라는 주련이 있다.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오늘을 사는 것이 수행이고, 그 산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살지만, 이 하루는 언제나 그 어떤 날보다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하루일 것이다.

社 說

연화원 창립 20돌에 부쳐

장애인전법 중심도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연화원은 1990년 출간된 일반 수화집에 수록된 불교 수형이 3~4개뿐임을 확인한 해성 스님(연화원 대표이사)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시작됐다. 1993년 2월, 서울 석촌동(당시 포이동)에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도량을 꾸렸고, 2003년 법인으로 거듭났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도 연화원은 장애인 전법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 〈자비의 수화교실〉(1999)을 발간했고 이는 11년 후인 2010년, 1127개의 수형을 담은 국립국어원 편찬 〈불교 표준 수화집〉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굴했다. 〈금강경〉 〈법화경〉 등 다양한 경전을 점자로 제작해 보급하는 데도 앞장섰다. 들을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수화교재를, 볼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서는 점자 경전과 음성녹음CD를 편찬·제작했다.

최근에는 종단본 〈불교성전〉 점자 제작에 한창이라고 한다. 최근 3권이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7권까지 출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연화원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복합 종합복지관 개관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1층은 카페 겸 장애인 생산용품 판매점, 2~3층은 지체·시청각 장애인 전용 공간, 4층은 의료시설, 5층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모시고 싶다는 게 해성 스님의 꿈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익창출, 문화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언젠간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해성 스님의 발원이 하루 속히 원만성취되길 바란다.

봉녕사 여성 출가학교 기대된다

수원 봉녕사가 내년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제1기 여성출가학교'를 연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한 달간 봉녕사에 머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차명상·요가·사찰음식 특강·화성행궁 산행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 것도 눈길을 끈다.

봉녕사는 스스로 삶을 점검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출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출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봉녕사의 이 같은 시도는 한국불교가 맞이한 '출가 절벽'에 기인한다. 1990년대만 해도 한 해 4~500여 명에 달했던 조계종 출가자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2008년 200명대에 들어섰다. 2017년에는 한 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부터는 100명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61명에 그치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전반적 출가자 감소에 비구니 출가자도 급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여성출가학교'는 기대할 만하다. 2004년 문을 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도 일반인이 삭발염의하고 행자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기출가학교 수료생 중 10%는 실제로 출가수행자가 돼 출가문화 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 65기까지 배출됐다.

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고, 출가 문호를 넓히기 위한 시도는 많을수록 좋다. 봉녕사의 새로운 시도가 한국불교 출가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10-5640-8883 대구지사 : 010-6780-9190
경남지사 : 010-3860-7008 영주지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북지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㉑ 드라마 '악귀'

번뇌가 악귀를 불렀다

SBS 드라마 '악귀'는 대본의 완성도면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은희 작가가 대본을 썼다.

'악귀'는 악귀에 씐 구산영(김태리)과 악귀를 볼 수 있는 민속학자 염해상(오정세)이 악귀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파헤쳐가는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 드라마다.

염해상은 구산영의 아버지에게 씌었던 악귀가 딸인 구산영에게 옮겨간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애초 악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염해상의 할머니인 나병희(김해숙)가 악귀를 만들었다. 1958년 나병희는 남편 염승옥과 함께 가난한 집안의 자매인 이목단과 이향이를 살인 교사했다. 목단과 향이를 직접 살해한 것은 최만월이라는 무당이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는 집안에 악귀인 태자귀가 씌게 되면 대대로 부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악귀의 마력에 힘입어 중현상사는 중현캐피털로 거듭나면서 사세가 커지지만, 악귀의 저주도 3대까지 계승되어서 장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때 회사는 기로에 있었어. 우리가 아니었다면 네가 이런 사치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병희가 손자인 염해상을 벌레 보듯이 하면서 내뱉는 대사이다. '악귀'는 오컬트 드라마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은 자본가의 탐욕을 비판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염씨 가문은 목단과 향이를 제물로 삼아서 일어선 탐욕의 가문이다. 하지만 불길처럼 치솟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염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나병희는 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남편과 아들의 죽음까지도 감내한다. 악귀와 거래한 나병희의 모습은 메피스토의 유혹에 넘어간 파우스트와 다르지 않다. 나병희가 악귀와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삼독번뇌(三毒煩惱), 즉,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痴)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드라마 속 향이가 악귀가 된 이유 역시 삼독번뇌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삼독번뇌는 삼계의 모든 번뇌를 포섭한다. 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아서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화경〉에 이르길 "마음에는 세 가지 때가 있다. 탐하여 구하는 욕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진심, 그리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그것이다. 이것이 모든 슬픔과 근심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탐, 진, 치를 멸한 사람은 가장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분노가 일지 않는 고요한 마음에서, 어리석음이 걷힌 지혜의 눈으로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염씨 가문이 악귀를 만든 이유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염씨 가문은 악귀의 노예가 되어서 대대로 과보를 받아야 했다. 악귀 들렸다가 본래의 평상심을 되찾은 구산영의 모습은 "삼독의 불이 모두 꺼져버리면 해탈 열반에 이른다"는 〈아함경〉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끝〉

〈소설가〉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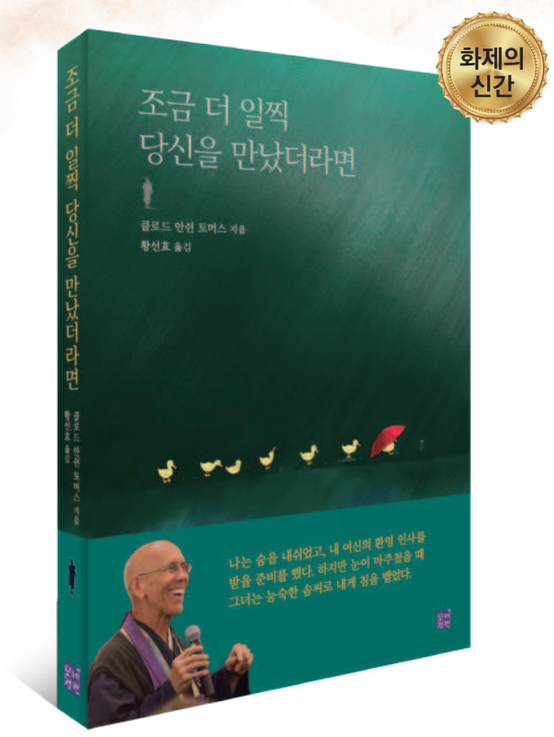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